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5년 2월
석사학위논문

학령기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의 기질과 의사소통태도 특성

Characteristics of temperament and communication
attitudes in school-age children who stutter

조선대학교 대학원

언어치료학과

차 현

학령기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의 기질과 의사소통태도 특성

Characteristics of temperament and communication
attitudes in school-age children who stutter

2015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언어치료학과

차 현

학령기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의 기질과 의사소통태도 특성

지도교수 전 희 정

논문을 언어치료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언어치료학과

차 현

차 현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부자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홍의영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전희정 (인)

2014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문제	3
3. 용어정리	3
가. 말더듬 중증도	3
나. 의사소통태도	4
다. 기질	5
II. 이론적 배경	7
1. 말더듬과 의사소통태도	7
가. 말더듬 아동의 의사소통태도	7
나. 말더듬 성인의 의사소통태도	10
다. 말더듬 중증도에 따른 의사소통태도	10
2. 기질적 특성과 말더듬	12
가. 기질의 구성요소	12
나. 말더듬 아동의 기질적 특성	14
III. 연구 방법	16
1. 연구대상	16
2. 자료 수집 절차	16

3. 검사 도구 및 검사결과 분석	17
가. 말더듬 중증도 검사	17
나. Communication Attitude Test Revised(De Nil & Brutten, 1991) 의사소통태도 검사	17
다. 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CBQ) Short Form Version 1 (Putnam & Rothbart, 2006) 유아기질척도-간편형	18
4. 신뢰도 측정	18
5. 자료의 통계 처리	19
IV. 연구 결과	22
1. 말더듬 아동과 일반아동의 의사소통태도점수	22
가.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 집단 간 의사소통태도 점수 비교	22
나. 말더듬 중증도에 따른 집단 간 의사소통태도 점수 비교	22
2.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의 기질 특성	23
가. 말더듬 아동과 일반아동의 기질 점수 비교	23
나. 말더듬 중증도에 따른 집단 간 기질 특성 비교	25
3. 의사소통태도와 기질관계	27
가. 일반 아동의 의사소통태도와 기질의 상관관계	27
나. 말더듬 아동의 말더듬 점수와 의사소통태도 및 기질의 상관관계	28
IV. 논의 및 결론	30

1. 논의	31
가.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의 의사소통태도 점수와 말더듬 중증도에 따른 의사소통태도 점수 비교	31
나.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의 기질 차이 비교	32
다. 의사소통태도와 기질의 상관관계	33
3.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	34
참고문헌	36
부록	42

표 목차

<표 1> 연구 참여자 아동들의 언어 및 인지검사 점수와 의사소통태도 점수, 기질의 상위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20
<표 2> 주의통제 하위요인들과 K-WISC-III 점수와의 상관분석 결과	20
<표 3>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 집단 간 의사소통태도 점수 비교 결과	22
<표 4> 말더듬 중증도에 따른 의사소통태도 점수 비교 결과	23
<표 5>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 집단 간 외향성, 부정적 정서 점수 비교 결과	23
<표 6>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 집단 간 기질의 하위요인 점수 비교 결과	24
<표 7> 말더듬 중증도에 따른 기질의 상위요인 점수 비교 결과	25
<표 8> 말더듬 중증도에 따른 기질의 하위요인 점수 비교 결과	26
<표 9> 일반 아동의 의사소통태도 점수와 기질의 상위요인 점수의 상관분석 결과	27
<표 10> 일반 아동의 의사소통태도 점수와 기질의 하위요인 점수의 상관분석 결과	27
<표 11> 말더듬 아동의 말더듬 점수, 의사소통태도 점수와 기질의 상위요인 점수의 상관분석 결과	28
<표 12> 말더듬 아동의 의사소통태도 점수와 기질의 하위요인 점수의 상관분석 결과	29
<표 13> 말더듬 아동의 말더듬 점수와 기질의 하위요인 점수의 상관분석 결과	29

부록 목차

<부록 1> 대상자의 대한 정보	42
<부록 2> CBQ 기질 구성요소	43
<부록 3> 의사소통태도 검사지	45
<부록 4> 유아기질 척도 질문지	48

<ABSTRACT>

Characteristics of temperament and communication attitudes in school-age children who stutter.

Cha Hyun

Advisor: Prof. Chon HeeCheong, Ph.D.
Speech and Language Pathology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etter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emperament and communication attitudes in school-age children who stutter and who do not. Thu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temperament and communication attitudes between the two groups is performed. Then the degree of stuttering is classified into 'mild' and 'moderate' to be compared to non-stuttering children separately. The same characteristics of the non-stuttering children are studied, and the stuttering level, communication attitude and relation between characteristics are observed.

The study subjects are 10 stuttering first to second grade pupils aged from 6 to 8 years 11 months(5 mild, 5 moderate) and 10 non-stuttering ones. They went through CAT-R and CBQ tests(Putnam & Rothbart, 2006). In case of the children who stutter, P-FA-II was done in order to find out the degree of seriousness of stuttering.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 first, the communication attitude of the stuttering children was significantly negative compared to their counterparts($p = .009$); second, the communication attitude level of the three groups compared by the seriousness of stuttering resulted in a meaningful difference, but an after-study or afterward assessment found out further that the 'mild' stuttering group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to the non-stuttering group or to the moderate group while the moderate group showed significantly more negative attitude than the

non-stuttering group; third, studying the upper level factors(surgency, negative affection, effortful control) and sub-factors for the temperament of the whole stuttering group and the non-stuttering group show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forth, the comparison of the upper level factors and sub-factors for the temperament according to the seriousness of stuttering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and fifth, the communication attitude level and temperament upper level factors and sub-factors level among non-stuttering children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ut the coefficient of correlation of communication attitude and effortful control, one of the temperament upper level factors, turned out to be .448, which is relatively high. When comparing the communication attitude and temperament sub-factors, some of the sub-factors of effortful control such as inhibitory control($r = .554$), low intensity pleasure($r = .404$) and perceptual sensitivity($r = .480$) turned out to be high, too. In case of the stuttering children, the communication attitude and temperament upper level factors and sub-factors were not significantly related. But the high intensity pleasure($r = -.455$) showed strong negative correlation.

Comparison between P-FA-II stuttering level, communication attitude level and temperament upper level factors and sub-factors, the variables did not show any correlation. But the stuttering level and communication attitude showed relatively high positive correlation($r = .620$). The same applies for the correlation of effortful control and the stuttering level($r = .444$). Also, the stuttering level and high intensity pleasure showed high negative correlation($r = -.412$), while discomfort($r = .423$) and low intensity pleasure($r = .618$) showed high positive correlation.

The result indicates that the stuttering children do show more negative communication attitude than the non-stuttering ones, and the higher the seriousness is, the more negative they tend to get, as previous studies have revealed. But on the temperament aspec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stuttering and the non-stuttering children, which disagrees with previous studies which claim that stuttering children are emotionally more negative and have lower effortful control. The temperament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difference, either, even among

groups divided by seriousness of stuttering. The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the non-stuttering children and the temperament, the communication attitude and effortful control showed high correlativity. It is probably because of the high correlativity that occurred with inhibitory control, one of sub-factors of effortful control and also because non-stuttering children showed higher capability to control negative approachability than stuttering ones under an unfamiliar situation or a command.

In case of the stuttering children, there was no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communication attitude and temperament, but one of sub-factors, high intensity pleasure showed high correlativity, which leads to a conclusion that the higher the high intensity pleasure gets, the less negative the communication attitude becomes. The stuttering level and the communication attitude also showed high correlation, which conforms to the previous study results that suggested the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the stuttering seriousness and communication attitude. Also, the stuttering level and effortful control showed comparatively high correlation. This is probably because the low intensity pleasure, one of sub-factors of effortful control is highly correlated. The result may lead to a conclusion that the lower the low intensity pleasure gets, the more reactive to environmental stimuli and thus the more one stutters. One of the sub-factors of high intensity pleasure showed strongly negative correlation with stuttering level, which may mean the faster one adopts to new environments, the less likely one should stutter. The stuttering level and discomfort showed high positive correlation, which may lead to a conclusion that the more uncomfortable one gets, the more likely one should stutter.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말하는 것에 대해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거의 모든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태도나 감정을 서로 공유하고 상호 의사소통 할 수 있다. 그러나 발달성 말더듬 장애(이하 말더듬)를 가진 사람의 경우 말할 때 말더듬이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에 신경을 쓰고 긴장하게 되어 의사소통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말을 더듬는 사람들은 말더듬으로 인해 일반인들에 비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의사소통태도를 가지게 된다고 한다(Andrews & Cutler, 1974).

말더듬 성인의 경우 전반적인 의사소통태도가 일반인들에 비해 부정적이라는 것은 일관된 선행연구 결과들을 통해 확인되었다(예: 고영옥·권도하, 2010; 전희숙, 2005; Quesal & Shank, 1978; Vanryckeghem & Brutten, 2012). 하지만, 말더듬 아동의 경우 연구자들에 따라 상반된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학령 전 어린 말더듬 아동의 경우 자신의 말더듬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사소통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이승환, 2005; Guitar, 1998) 어린 말더듬 아동들도 자신의 말더듬을 인식하고 있으며 일반 아동에 비해 부정적인 의사소통태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민경미, 2003; 이지숙·심현섭·이수복, 2013; Vanryckeghem, Brutten, & Hernandez, 2005; Yairi & Ambrose, 2005). 학령기 말더듬의 경우 일반 아동에 비해 더 부정적인 의사소통태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주를 이루기는 하지만(김우정, 2012; 박진원·권도하, 2009; Bernardini, Vanryckeghem, Brutten, Cocco, & Zmarich., 2009; De Nil & Brutten, 1991; Kawai, Healey, Nagasawa, & Vanryckeghem, 2012) 말더듬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이나 걱정을 보이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Bloodstein, 1987; 이순옥, (2010)에서 재인용).

이러한 비일관적인 연구결과는 말더듬 아동의 의사소통태도가 다양한 요인, 즉 말더듬 증정도, 연령, 말더듬 시작 이후 지속기간, 기질 등 다양한 요인과 관련이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말더듬을 가진 사람은 대체적으로 낯선 사람과 친분을 맺기 위한 상황이나 공적으로 말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불안을 경험하게 되는

데(Van Riper, 1982), 말더듬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들은 말더듬이 심할수록 불안이 더 높게 나타나고, 불안감이 높을수록 의사소통태도도 더 부정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고영옥·권도하, 2010; Blood, Blood, Glen, & Gabel, 2001). 학령 전 및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도 말더듬 중증도와 의사소통태도의 관련성 혹은 말더듬 중증도에 따른 의사소통태도의 차이를 보고하고 있다. Vanryckeghem, Hylebos, Brutten, & Peleman,(2001)은 학령기 말더듬 아동의 부적절한 태도와 부정적 감정은 말더듬 중증도와 상관이 있으며, 말더듬이 심할수록 더 부정적인 의사소통태도를 보인다고 하였고, 박진원·권도하(2009) 역시 중증도가 ‘심함’인 아동 집단이 중증도가 ‘약함’인 아동집단보다 의사소통태도가 더 부정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 학령 전 말더듬 아동과 일반아동의 의사소통태도를 비교한 이지숙 외(2013) 역시 중증도가 심한 아동이 약한 아동보다 의사소통 태도가 유의하게 부정적임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아동의 말더듬 중증도가 의사소통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말더듬 중증도의 영향을 보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말더듬 성인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국내에서는 중증도에 따른 학령기 말더듬 아동의 의사소통태도 특성과 이를 일반 아동과 비교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의사소통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 기질(Temperament)은 유전적으로 타고난 성격으로 생의 초기에 나타나 영아의 언어능력에 차이를 가져오고(김현, 2008; 장유경·이근영, 2006), 이후 사회적 능력과도 상관있다고 한다(양수정, 2007). Ahadi & Rothbart(1994)에 의하면 연구자들이 기질은 생후 초기부터 보이는 개인차의 근원이며, 기질을 형성하는 심리적 특성이 유아기, 아동기를 거쳐 성인기까지 지속된다고 믿었다고 하였다(이형경, (2007)에서 재인용). 또한 한 개인의 기질은 어느 정도 계속성을 보이기는 하지만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Bates, Freeland, & Lounsbury, 1979; Tomas & Chess, 1977). 이는 기질이 영유아기뿐 아니라 학령기와 성인의 일반적인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의 반복적인 경험이나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말더듬 아동의 기질 특성은 주로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기질이 말더듬의 진전 혹은 지속과 관련된 요인으로 여겨져 왔다(Anderson, Pellowski, Conture, & Kelly, 2003). 따라서 어린 말더듬 아동보다 오랜 기간 동안 말더듬으로 인한 부정적 경험을 하고 말더듬이 만성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학령기 말더듬 아동의 기질적인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령기 아동은 유아기와 달리 가족 구성원 외에 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게 되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경험하게 된다(안경숙, 2001). 또한 언어를 이용한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또래와의 의사소통 능력을 포함한 사회인지적 기술이 발달하게 된다(황경미, 1998). 그러므로 학령기에 말더듬으로 인해 또래나 선생님들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사회인지적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말더듬으로 인해 부정적인 의사소통태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초등학교 1-2학년 말더듬 아동과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의사소통태도와 기질 특성의 차이를 알아보고, 말더듬 중증도에 따른 의사소통태도와 기질 특성을 일반 아동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학령기 말더듬 아동의 말더듬 점수와 의사소통태도, 기질의 관련성을 연구하여 이 아동들을 위해 보다 적절하고 효율적인 말더듬 치료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말더듬 아동 집단과 일반 아동 집단의 의사소통태도에 차이가 있는가?
2. 말더듬 중증도에 따른 의사소통태도에 차이가 있는가?
3.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의 기질(상위요인, 하위요인)에 차이가 있는가?
4. 말더듬 중증도에 따른 집단 간 기질(상위요인, 하위요인)에 차이가 있는가?
5. 일반 아동은 의사소통태도와 기질 간 관련성을 보이는가?
6. 말더듬 아동은 말더듬 점수, 의사소통태도와 기질 간 관련성을 보이는가?

3. 용어정리

가. 말더듬 중증도

말더듬 중증도는 말더듬이 얼마나 심한지 평가한 결과를 뜻하며, 일반적으로 핵

심행동과 부수행동 특성의 측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말더듬 핵심행동에는 반복, 연장, 막힘이 포함된다. 반복의 경우 언어학적 단위에 따라 정상적 혹은 비정상적 비유창성으로 구분되는데, 낱말 부분 반복(다음절낱말 일부 반복, 음절반복, 말소리 반복)과 일음절낱말 반복이 핵심행동에 포함된다(Guitar, 1998). 연장은 소리나 공기의 흐름은 계속되나 한 소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하며, 막힘은 말의 흐름이 부적절하게 중단되고 조음기관의 움직임이 순간 멈추는 것을 말한다(심현섭·신문자·이은주, 2010).

부수행동은 핵심행동으로 인해 나타나는 화자의 반응으로 말더듬 순간에 말더듬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취하는 탈출행동과 말더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말을 기피하기 위해 나타나는 회피행동이 있다. 탈출행동을 가진 말더듬는 사람은 말을 더듬는 도중에 말더듬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을 구른다거나 갑자기 고개를 뒤로 젖히는 것과 같은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회피행동은 눈 맞춤을 피하여 말하는 상황을 회피하거나, 더듬는 말을 다른 낱말로 바꾸어 말하거나, 에둘러 말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심현섭 외, 2010).

본 연구에서는 말더듬 중증도를 평가하기 위해 『파라다이스 유창성검사-II』(이하 P-FA-II, 심현섭·신문자·이은주, 2010)를 사용하였다. P-FA-II는 말더듬 측정 시, 정상적 비유창성(ND: Normal disfluency)과 비정상적 비유창성(AD: abnormal disfluency)의 점수 합으로 말더듬 중증도를 측정하며, 연령에 따라 취학 전 아동용, 초등학교 저학년용, 초등학교 고학년용, 중학생 이상용으로 과제가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정상적 비유창성(ND)에는 주저(H), 간투사(I), 미완성/수정(Ur), 반복1(R1)이 포함되며, 비정상적 비유창성(AD)은 주저(Ha)(3초 이상 주저함이 지속되거나 시각적 긴장이 동반되는 경우), 간투사(Ia)(3회 이상 간투사를 반복하거나 시각적 긴장이 동반되는 경우), 미완성/수정(Ura)(끝맺지 못한 발화 혹은 낱말, 또는 수정이 3회 이상 연속적으로 일어나거나 시각적 긴장이 동반되는 경우), 반복 1(R1a)(다음절낱말, 구 어절 등이 3회 이상 반복되거나 시각적 긴장이 동반되는 경우), 반복2(R2)(낱말보다 작은 단위에서 반복되는 경우), 비운율적 발성(DP)(막힘, 연장, 깨진 낱말)이 해당된다.

나. 의사소통태도

의사소통태도는 타인과 의사소통 하는 상황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나 태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De Nil & Brutten(1991)의 Communication Attitude Test-Revised(CAT-R)를 사용하여 학령기 말더듬 아동의 의사소통태도를 측정하였다. CAT-R은 대상자의 자가 측정을 통해서 이뤄지며 ‘예’나 ‘아니오’ 이원화 형식으로 판단하여 각 문항에 답변하게 되어 있다. CAT-R은 의사소통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 스스로 의사소통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낮은 점수일수록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 기질

기질은 여러 연구자들을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 내릴 수 있다.

Allport(1961), Buss & Plormin(1984), 전수연(2002)은 기질을 유전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현상이라고 하였으며 선천적인 경향을 논할 때 기본이 된다고 하였다. 즉, 자극에 대한 민감성, 일상적인 반응의 강도와 속도, 일반적인 기분상태, 모든 독특한 변화와 기분의 강도를 포함한 개인의 본성 등의 특징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박혜원·곽금주·정철주, 1994).

Tomas & Chess(1977), 송명자(1995)는 기질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였으며, 기질이란 정서적 표현 양식과 환경의 자극에 대한 반응양상의 차이를 식별할 수 있는 성격의 개인차라고 하였다.

Rothbart & Derryberry(1981), Goldsmith & Campos(1982)는 기질의 정서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Rothbart & Derryberry(1981)는 기질을 성격의 한 일부분으로 보았고 성격은 자아개념이나 기대 등의 인지적인 구조가 포함되나 기질은 반응성과 자기조절에 관한 행동경향으로서 개인에 있어 비교적 지속적인 특징이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전, 성숙,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정의하였다.

Goldsmith & Campos(1982)는 기질을 심리생리학적 개념에 근거하여 기본적인 정서나 각성을 경험하고 표현하는 성향에서의 개인차로 정의하였다(오정금, (2009)에서 재인용).

Bates et al.(1979)는 기질이 유전적인 근거를 갖고 영아기에 나타나 어느 정도 계속성을 보이며, 한 개인에 대해 객관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특질로 환경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연구자가 기질의 정의를 다양하게 설명하였다. 하지만 기질이 인간이 타고난 생물학적 특성이며, 개인차가 있다는 공통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말더듬과 의사소통태도

말을 더듬는 사람은 자신의 말더듬에 대한 민감한 반응과 주위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해 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태도가 형성된다(Bloodstein, 1987). 때문에 말을 더듬는 사람의 의사소통 태도와 관련된 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며, 임상에서도 말더듬 평가 및 중재 시 대상자의 말더듬 행동뿐만 아니라 말더듬과 관련된 정서적 측면과 의사소통태도를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심현섭 외, 2010).

가. 말더듬 아동의 의사소통태도

말더듬과 관련된 전통적 관점은 어린 말더듬 아동의 경우 자신의 말더듬 발화를 인식(awareness)하지 않기 때문에 말더듬을 걱정하거나 부정적인 의사소통 태도를 갖지 않는다고 여겼다(Guitar, 1998). 예를 들어, Bluemel(1932)은 학령기가 되면서 자신의 말더듬에 대한 완전한 인식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으며(이순옥, (2010)에서 재인용), Guitar(1998)는 어린 말더듬 아동은 말더듬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과 태도를 갖지 않다가 말더듬이 지속되면서 점차 말더듬을 인식하게 되고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말더듬이 시작된 지 오래되지 않은 어린 아동들 중 일부도 말더듬을 인식하고 있으며, 부정적인 의사소통태도를 보였다는 상반된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Vanryckeghem, Brutten, & Hernandez(2005)가 3-6세 말더듬 아동과 일반아동의 의사소통태도를 유아용 의사소통태도 검사(Kiddy-CAT: Communication Attitude Test for Preschoolers and Kindergartners)를 사용하여 비교한 결과, 말더듬 아동이 유의미하게 높은 의사소통태도를 나타내 일반아동에 비해 더 부정적인 의사소통태도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도 이지숙(2009)이 유아용 의사소통태도 검사 Kiddy-CAT (Vanryckeghem & Brutten, 2007)을 사용하여 3-5세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의 의사소통태도를 비교하고 말더듬 아동의 의사소통태도와 연령, 중증도 차이와 어머니

니의 의사소통태도와 상관계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말더듬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검사 점수를 보여 의사소통태도가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말더듬 아동의 의사소통태도가 어머니의 의사소통태도와 유의미하게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나 중증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연구대상자를 증가시켜 반복연구를 실시한 결과, 말더듬 아동의 연령과 중증도가 증가할수록 의사소통태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아졌음을 보고하였다(이지숙 외, 2013).

발달성 말더듬은 대체로 만 2세 이후에 나타나게 되며 말더듬이 6-7세까지 지속되면 말더듬의 만성화를 예상할 수 있다고 한다(심현섭 외, 2010). Yairi & Ambrose(2005)도 종단연구를 통해 말더듬 아동들이 말더듬이 시작된 후 첫 3년 동안 자연회복이 급격하게 이루어졌지만 5년 후에는 자연회복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학령기 아동은 말더듬이 지속된 아동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말더듬이 지속된 아동은 말더듬으로 인해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서 말에 대한 공포, 두려움, 좌절 및 저항감을 가지게 되고, 스스로 말을 더듬는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질 수 있다(이순옥, 2010).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학령기 말더듬 아동의 정서적 특성 및 의사소통태도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De Nil & Brutten(1991)은 학령기 말더듬 아동과 일반아동의 의사소통 태도를 의사소통태도검사-수정판(CAT-R: Communication Attitudes Test- Revised)을 사용하여 비교 연구한 결과 70명의 말더듬 아동 집단이 평균 16.7점을 획득하고, 271명의 일반아동 집단은 평균 8.71점을 획득하여 말더듬 아동 집단이 더 부정적인 의사소통태도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Bloodstein(1987)은 3-4학년 이하 학령기 말더듬 아동과 일반아동의 의사소통태도를 비교한 초기 연구에서는 말더듬 아동 집단에 말더듬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는데, 이후 1993년 연구에서 말더듬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의사소통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상반된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후 이와 의견을 일치한 많은 연구들이 보고되었는데, 박진원·권도하(2009)는 7-9세 말더듬 아동과 일반아동 각 20명씩 총 40명을 대상으로 De Nil & Brutten(1991)의 CAT-R을 사용해 의사소통 태도에 차이가 있는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말더듬 아동은 평균 12.65점을 나타냈으며 일반아동은 평균 8.70점을 보여 말더듬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더 부정적인 의사소통태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Bernardini et al.(2009)

역시 6-14세 이탈리아 말더듬 아동과 일반아동의 의사소통 태도 점수를 비교한 결과, 말더듬 아동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특히 6세 아동이 가장 부정적인 의사소통태도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순옥(2010)은 1-3학년 말더듬 아동 집단과 기능적 조음장애 아동 집단, 일반아동 집단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세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말더듬 집단 아동이 다른 두 집단보다 더 부정적인 의사소통 태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러한 부정적 의사소통 태도는 말더듬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반복하여 경험하게 되면서 두려움과 공포, 좌절, 죄의식 및 저항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겨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김우정(2012)은 초등학교 1-6학년 말더듬 아동과 일반아동 간 불안 정도 및 의사소통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으며, 말더듬 아동 집단 내에서 불안 점수, 말더듬 정도, 의사소통태도 점수 및 어머니의 불안 점수 사이에 상관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P-FA-II의 초등학생용 의사소통태도 검사를 사용하여 연구를 실시한 결과 말더듬 집단이 유의하게 더 부정적인 의사소통태도를 나타냈었으며, 불안수준도 유의하게 높았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말더듬 아동 집단의 불안과 의사소통태도, 어머니의 불안 사이에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고 보고 하였다. Kawai et al.(2012)은 일본의 1-6학년 말더듬 아동과 일반아동의 의사소통태도 검사를 위해 CAT-R을 일본어로 번역하여 사용한 결과 말더듬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더 부정적인 의사소통태도를 나타냈으며 1학년 말더듬 아동집단이 다른 학년 집단보다 의사소통태도가 더 긍정적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더 부정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을 통해 말더듬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더 부정적인 의사소통과 불안을 나타내며 연령이 높을수록 더 부정적인 의사소통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사소통태도검사(CAT)는 말더듬 아동의 의사소통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국내외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도구로(박진원, 2008; 박진원·권도하, 2009; 장혜주, 2013; De Nil & Brutten, 1991) Brutten(1985)에 의해 35문항으로 개발되었다. De Nil & Brutten(1991)은 CAT의 35문항 중 총점과 유의한 상관이 없거나 부적상관을 보인 3문항을 제외한 의사소통태도검사-수정판(CAT-R)을 제시하였다. 최근에는 Brutten & Vanryckeghem(2007)이 CAT-R에 한 문항을 추가한 총 33문항을 사용하여 표준화한 CAT를 학령기 말더듬 아동을 위한 검사도구인 Behavior Assessment Battery의 일부분으로 출판하기도 하였다.

나. 말더듬 성인의 의사소통태도

말더듬 성인의 경우 말을 더듬는 기간이 오래되고 말더듬이 만성화 되어있으며 반복된 유창성 실패로 인해 일반 성인에 비해 더 부정적인 의사소통태도를 보인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Quesal & Shank(1978)는 일반 성인과 조음장애 성인, 말더듬 성인 각 24명을 대상으로 Erickson S-scale(1969)을 사용하여 의사소통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들은 이 연구를 통해 일반 성인 집단이 다른 장애 집단에 비해 가장 긍정적인 의사소통태도를 나타내었으며 말더듬 성인이 조음장애 성인이나, 일반 성인에 비해 더 부정적인 의사소통태도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고영옥·권도하(2010)는 Erickson(1969)이 개발한 뒤 Andrews & Cutler(1974)가 수정한 의사소통태도 검사인 S-24(Revised Communication Attitude Inventory)를 사용하여 말더듬 성인 73명과 일반성인 73명의 의사소통태도를 비교한 결과 말더듬 성인집단이 일반 성인에 비해 유의하게 부정적인 의사소통태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고영옥(2011)은 20-50세 말더듬 성인 200명과 일반 성인 200명에게 S-24를 사용해 의사소통태도를 검사한 결과 말더듬 성인이 일반 성인보다 더 부정적인 의사소통 태도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Vanryckeghem & Brutton(2012)는 BigCAT(Adult Form of the Communication Attitude Test)와 S-24를 이용한 의사소통태도검사를 실시하여 BigCAT의 타당도를 알아보았다. 검사 결과 두 검사 모두 말더듬 성인의 의사소통태도가 일반 성인에 비해 유의하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 말더듬 중증도에 따른 의사소통태도

Guitar(1976)는 말더듬 정도와 의사소통태도 있어서 부정적인 태도는 상호 독립적이며 말에 대한 태도 및 감정이 말더듬 행동과 연관성이 없다고 하였다(김우정, (2012)에서 재인용). 하지만 말을 더듬는 사람이 말을 더듬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부정적인 의사소통태도를 보였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면서 말더듬 집단 내에서 말더듬 중증도가 의사소통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혹은 두 변수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였다.

Miller & Watson(1992)은 52명의 말더듬 성인을 대상으로 말더듬 중증도를 심함, 중간, 약함으로 나누고 의사소통태도 점수와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말더듬 중증도와 의사소통태도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김우정(2012)은 학령기 말더듬 아동 72명을 대상으로 말더듬 중증도에 따른 의사소통태도 차이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말더듬 중증도(심함, 중간, 약함)에 따른 의사소통태도 점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이와 상반되게 말더듬이 심한 사람이 약한 사람보다 더 부정적인 의사소통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도 보고되고 있다.

고영옥·권도하(2010)는 말더듬 성인 73명을 중증도에 따라 경도, 중도, 고도 집단으로 나누어 의사소통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말더듬 중증도가 심해질수록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중도와 고도 집단이 일반 성인에 비해 의사소통태도가 부정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최다혜(2003)는 말더듬 성인을 대상으로 말더듬 중증도 검사(SSI-3: Stuttering Severity Instrument-3rd ed.)(Riley, 1972) 기준에 따른 말더듬 중증도 점수와 의사소통태도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상관계수가 .47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학령기 말더듬 아동 또한 말더듬이 심할수록 부정적인 의사소통태도를 가진다고 보고 되고 있는데, 박진원·권도하(2009)는 7-9세 학령기 말더듬 아동을 대상으로 말더듬 '약함'과 '심함'을 비교한 결과 말더듬이 심할수록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인 의사소통태도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Vanryckeghem et al. (2001)은 7-13세 말더듬 아동 143명을 대상으로 말더듬 중증도에 따른 말에 대한 태도 및 부정적 정서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말더듬 중증도와 말에 대한 태도 및 부정적 감정 사이에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말더듬 중증도와 의사소통태도가 상관이 있음을 나타내며 말더듬이 감소되면 의사소통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많은 연구가들에 의해 말더듬 개선과 의사소통태도 변화에 대한 연구들이 이뤄졌다. 김효정(2003)은 말더듬 성인 6명을 대상으로 그룹치료를 실시한 결과 읽기, 독백 및 대화상황에서의 말더듬 백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으며, 6명의 의사소통태도 점수도 평균 19.17점에서 12.17점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여 그룹치료 후 말더듬 행동과 부정적인 의사소통태도가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김효정·권도하(2004)는 말더듬 성인에게 발살바(Valsalva)-말더듬 치

료법을 실시하여 말더듬이 개선되었는지를 알아보는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치료 후 대상자의 말더듬이 개선되었으며 의사소통태도 점수도 낮아졌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으며, 박진원(2008)은 리드믹한 구어 훈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치료 전과 후의 말더듬 빈도 및 의사소통태도 점수를 비교한 결과 말더듬 빈도와 의사소통태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말더듬이 개선되고 의사소통태도가 부정적인 태도에서 긍정적인 태도로 바뀌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장혜주(2013)는 5명의 말더듬 아동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중심 스피치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말더듬 빈도 및 의사소통태도 점수가 유의미하게 감소되는 변화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앞에 제시한 말더듬 중증도와 의사소통태도가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해준다.

2. 기질적 특성과 말더듬

가. 기질의 구성요소

임상에서 아동들을 접하다 보면 어떤 아동들은 매우 온순하고 다루기가 편한 반면, 어떤 아동들은 고집이 세고 산만하며, 어떤 아동들은 너무 민감하고 예민하여 쉽게 자신감을 잃어가는 경우가 있다. 물론 환경적인 영향이나 양육자의 성격에 따라 아동들의 행동도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아이들을 보고 기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기질은 출생 직후부터 나타난 개인의 안정되고 일관된 특성으로 개인의 독특성, 또는 선천적인 경향을 논할 때 기본이 되고, 유아의 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의 하나로 큰 의미를 갖는다(전수연, 2002). 그러므로 기질적으로 까다롭거나 예민한 아동은 새로운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여 화를 내거나 슬피하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선행연구자들은 기질을 생후 초기부터 보이는 개인차의 근원으로 간주하여 많은 관심을 쏟아왔는데 기질을 형성하는 심리적 특성이 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성격의 토대라고 믿었기 때문이다(이형경, (2007)에서 재인용).

기질에 관한 최초 연구자인 Thomas & Chess는 1956년 뉴욕종단연구(New York Longitudinal Study: NYLS)에서 9가지 기질범주(활동수준, 규칙성, 접근-회피성, 적응력, 반응자극량, 반응강도, 일반적 정서 상태, 산만성, 주의력 및 지구력)

를 질적으로 분석하였으며, 1977년 기질을 3가지 유형(순한 기질, 까다로운 기질, 적응이 느린 기질)으로 다시 분류하였다(최경숙, (2007)에서 재인용). 첫째 유형인 순한 기질(easy temperament)의 유아는 차분하고, 전형적으로 긍정적 기분이며, 새로운 경험에 매우 개방적이고 적응적이다. 또한 일상생활 습관이 대체로 규칙적이어서 예측이 가능하다고 한다(송길연 · 장유경 · 이지연 · 정윤경, 2012). 둘째 유형인 까다로운 기질(difficult temperament)의 유아는 적극적이고 민감하고 습관이 불규칙하며, 일과에서 변화들에 매우 강하게 반응하고 새로운 사람이나 상황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고 한다(송길연 외, 2012). 그러므로 까다로운 기질은 일상생활 습관이 불규칙하여 예측하기 어렵고 환경으로부터의 자극이나 욕구 좌절에 대한 반응강도가 강하며,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늦고, 사람들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도 느려 부적 정서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경숙, 2007). 셋째 유형인 적응이 느린 기질(slow-to-warm-up temperament)의 유아는 다소 변덕스럽고, 활발하지 못하며, 새로운 사람이나 상황에 접할 때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하지만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보다 다소 부드러운 부정적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송길연 외, 2012).

Rothbart(1996)는 아동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아동기질척도(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를 제안하였다. 아동기질척도는 영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한 IBQ(Infant Behavior Questionnaire)(Rothbart, 1981)와 성인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한 ATQ(Adult Temperament Questionnaire)(Derryberry & Rothbart, 1988)의 원척도인 PTQ(Parent Temperament Questionnaire)(Thomas & Chess, 1977)에 기초하고 있으며, 외향성(Surgency), 부정적 정서(Negative Affection), 주의통제(Effortful Control)의 3개의 상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3개의 상위요인은 다시 1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187문항으로 되어있다. 상위 요인 중 외향성은 아동의 행복감, 활동성의 정도 그리고 흥미 있는 자극을 추구하는 정도를 말하고, 부정적 정서는 아동의 분노, 공포, 긴장 및 수줍음의 정도와 진정되기 어려운 정도를 말하며, 주의통제는 아동이 집중할 수 있는 정도와 쉽게 산만해지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의 반응을 억제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권민균 · 김정민 · 최형성, 2008). 외향성의 하위영역은 접근성/긍정적 기대(approach/positive anticipation), 강한 자극 선호성(high intensity pleasure), 미소/웃음(smiling and laughter), 활동수준(activity), 충동성(impulsivity), 수줍음(shyness)이 포함된다. 접근성/긍정적 기대, 강한 자극 선호성, 미소/웃음, 활동수준, 충동성 점수가 높을수록, 그리고 수줍은 점

수가 낮을수록 외향성 점수가 높게 나타난다.

부정적 정서의 하위영역은 불안(discomfort), 공포(fear), 분노/좌절(anger/frustration), 슬픔(sadness), 반응 회복율/진정성(falling reactivity/soothability)이다. 불안, 공포, 분노/좌절, 슬픔의 점수가 높을수록, 그리고 반응 회복율/진정성 점수가 낮을수록 부정적 정서가 높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주의통제의 하위영역은 자극의 통제(inhibitory control), 주의 집중력(attentional focusing), 낮은 자극 선호성(low intensity pleasure), 자극 민감성(perceptual sensitivity)이 포함되며, 모든 하위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주의통제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기질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에서 Thomas & Chess(1977)의 기질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이경옥(2004)이 3-7세 유아 341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기질척도(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Rothbart, 1996)를 사용하여 아동기질척도의 신뢰도와 구성타당도를 검증한 뒤 성별과 연령에 따른 한국유아의 기질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원영미·박혜원·이귀옥(2004)의 연구에서 Rothbart의 아동기질척도를 94문항으로 줄인 아동기질척도-간편형(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Short Form Version 1: 이하 CBQ)(Rothbart, 2000)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CBQ에 대한 타당도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그 후 오정금(2009)은 만 3-6세 유아 220명을 대상으로 CBQ를 수정한 교사가 보고하는 아동기질척도(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Teacher Form)(Rothbart, 2000)의 94개 하위요인 중 공포(Fear)요인 1개를 제외한 93개의 타당도와 하위요인의 신뢰도를 입증하였으며 교사가 보고하는 유아 기질척도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였다.

나. 말더듬 아동의 기질적 특성

말더듬 장애를 설명하기 위하여 말더듬과 기질 사이의 연관성을 찾기 위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며, 연구자들은 말을 더듬는 아동의 기질적 특성은 말더듬의 악화와 지속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제안했다(Anderson et al., 2003).

Anderson et al.(2003)은 3-5세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의 기질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Behavioral Style Questionnaire(BSQ: McDevitt & Carey, 1978)를 사용한

결과 말더듬 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과다각성 정도가 높았으며,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낮으며, 불규칙한 생체기능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Eggers, De Nil & Vanden Bergh(2010)은 Dutch version of the 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CBQ-D)를 사용하여 3-8세 말더듬 아동과 일반아동에게 기질 검사를 실시하고 각 하위요인을 비교해본 결과 말더듬 아동이 더 낮은 자극 통제력과 주의집중력을 보였으며 분노/좌절, 접근, 활동성은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 기질의 상위범주인 '주의통제'와 '부정적 정서'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했다.

이은주·심현섭(2007)은 취학 전 말더듬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기질 및 양육행동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 취학 전 말더듬 아동 20명과 일반아동 20명을 대상으로 기질의 특성을 알아본 결과 말더듬 아동이 적응성에서 유의하게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Conture, Kelly, & Walden(2013)은 취학 전 말더듬 아동과 일반아동의 기질 비교연구를 통해 말더듬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낮은 적응성과 집중력/지속성을 보였으며 높은 활동 수준과 부정적 감정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Kraft, Ambrose & Chon(2014)은 69명의 취학 전 말더듬 아동을 대상으로 기질과 환경이 말더듬 중증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기질의 상위요인 중 주의 통제가 말더듬 중증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전반적으로 말더듬 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환경에 적응하거나 주의 유지하기가 어려우며(Embrechts, Ebben, Franke, & Van de Poel, 2000), 환경자극에 더 많은 반응을 하고(Wakaba, 1998), 더 민감하고, 불안해하고, 내성적이거나 소극적이다(Fowlie & Cooper, 1978; Anderson et al., (2003)에서 재인용)라는 선행 연구 결과를 지지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생활연령이 6세0개월 - 8세11개월인 초등학교 1-2학년 말더듬 아동 10명과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일반 아동 10명이었다.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은 (1) 현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2) 『한국웍슬러 아동지능검사, K-WISC-Ⅲ』(곽금주·박혜원·김청택, 2001)의 동작성 검사 결과 인지 발달이 정상범주에 해당되고, (3)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 REVT』(김영태·홍경훈·김경희·장혜성·이주연, 2009) 결과 수용 및 표현 언어 발달이 정상 범주에 해당되며, (4) 『우리말조음음운평가, U-TAP』(김영태·신문자, 2004) 결과 정상적인 조음 발달을 보이고, (5) 보호자에 의해 기타 신체적, 신경학적, 정서적 장애가 없다고 보고된 아동만을 선정하였다.

말더듬 아동의 경우, 위의 선정 기준에 추가하여 (1) 보호자에 의해 말더듬 문제가 보고되었고 (2) 언어재활사가 말더듬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3) 『파라다이스 유창성검사-II, P-FA-II』(심현섭·신문자·이은주, 2010)의 구어검사 중 초등학교 저학년용 필수 과제를 실시한 결과 말더듬 중증도가 약함 이상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말더듬 아동은 P-FA-II의 말더듬 중증도가 ‘약함’인 아동 5명, ‘중간’인 아동 각 5명을 선정하여 구성하였다. 각 대상자의 대한 정보는 <부록 1>에 제시하였다.

2. 자료수집 절차

각 집단의 아동을 선별하기 위해 개별검사가 가능한 조용한 방안이나 치료실에서 검사를 실시하였다. 각 아동에게 『K-WISC-Ⅲ』를 실시한 후 20분간 휴식을 취하고 『REVT』와 『U-TAP』을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별하였다. 세 개의 검사가 끝난 후 아동은 질문지 작성에 관한 설명을 듣고 한국어로 번역한 CAT-R(De Nil & Brutten, 1991)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아동이 검사를 받는 동안 아동의 부모 중 아동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어머니에게 한국어로 번역된 CBQ(Putnam &

Rothbart, 2006)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부모에 의해 말더듬으로 보고된 아동의 경우 2회에 걸쳐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첫째 날 『P-FA-II』를 실시하여 말더듬 중증도를 파악한 후 둘째 날에 일반아동과 동일한 순서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말더듬 평가는 Digital Camcorder(NP-FV50, SONY)로 모두 녹화하였으며, 분석의 정확성을 위하여 녹화 후 2일 이내에 발화를 전사하고 말더듬 중증도를 측정하여 기록하였다.

3. 검사 도구 및 검사결과 분석

가. 말더듬 중증도 검사

말더듬 아동의 중증도를 측정하기 위해 P-FA-II를 사용하였다. P-FA-II는 연령에 따라 말더듬 중증도 평가를 위해 사용하는 과제가 다른데,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용 과제를 선택하였다. 초등학교 저학년용 검사는 선택과제(날말그림, 따라말하기)와 필수과제(읽기, 이야기 그림, 말하기 그림), 부수행동정도, 의사소통태도로 말더듬 중증도를 측정하게 되어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필수과제만을 사용하여 말더듬 중증도를 측정하였다.

나. Communication Attitude Test-Revised (CAT-R, De Nil & Brutten, 1991): 의사소통태도 검사

본 연구에서는 De Nil & Brutten(1991)의 CAT-R을 사용하였다. 연구자가 이 검사지를 한국어로 번역한 후, 언어병리학을 전공하고 말더듬 언어재활 경력 2년 이상이며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언어재활사 2명과 번역의 적절성 및 내용의 적절성을 논의하고 수정하였다. 그 후 한국어로 번역한 검사지를 말더듬을 전공하고 언어재활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언어병리학 박사학위 소지자 1명이 원 문항과 번역한 문항의 내용을 확인 및 수정하였다. CAT-R은 자기 보고방식의 지필검사이며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자는 아동에게 각 문항을 읽고 ‘네’ 혹은 ‘아니오’로 답하게 하여 검사를 실시한 후, 각 문항의 답과 일치할 경우, 즉 말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답으로 선택한 경우 1점씩 주게 된다. 각 문항을 채점한 후 총 점수를 산출하게 되는데(최저 0점, 최고 32점), 검사 점수가 높을수록 아

동이 의사소통에 부담이 많고 부정적인 의사소통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De Nil & Brutten(1991)은 학령기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을 비교한 결과, 말더듬 아동 70명의 평균은 16.7점이었으며, 정상 아동 271명 평균 8.71점이라고 보고하였다.

다. 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Short Form Version 1 (CBQ)(Putnam & Rothbart, 2006): 아동기질척도-간편형

Putnam & Rothbart(2006)는 3-8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기질척도-간편형(CBQ)을 제안하였다. 이 검사 도구는 기질 차원을 측정하는 총 3개의 상위요인과 1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94문항으로 되어있다. 본 연구자는 아동기질척도-간편형(Putnam & Rothbart, 2006) 검사를 한글로 번역한 후 번역의 적절성을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언어재활사 2명과 논의하고 수정하였다. 그 후 한국어로 번역한 검사지를 말더듬을 전공하고 언어재활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언어병리학 박사학위 소지자 1명이 원 문항과 번역한 문항의 내용을 확인 및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CBQ는 부모가 각각의 문항을 읽고 아동의 행동을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7점으로 답 하도록 하고 해당사항이 없을 시 NA(not applicable)에 표기하도록 한다. 그 후 각각의 해당하는 문항에 표기된 점수 합을 문항수로 나누어 평균점수를 산출한다. 역척도 문항의 경우 표기한 점수의 역의 점수로 계산한다(예: 7점은 1점, 6점은 2점... 1점은 7점). CBQ의 각 상위요인에 포함되는 하위 요인에 대한 정의 및 문항 예시, 그리고 문항번호는 <부록 2>에 제시하였다.

4. 신뢰도 측정

말더듬 중증도에 대한 평가자내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전체 말더듬 아동 중 20%인 2명을 무작위 선별하여 말더듬 중증도 평가 실시 2주 후 연구자가 녹화된 비디오를 보고 재평가하여 중증도 일치율을 측정하였다. 평가자내 일치율은 90.8%였다.

말더듬 중증도에 대한 평가자간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말더듬 대상아동 10명 가운데 2명을 무작위로 선별하여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선별된 아동의 자료에 대하여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말더듬치료 경력이 5년 이상 된 언어재활사 1명과 함께 말더듬의 중증도 측정에 대하여 일치하는 정도를 평가하였다.

신뢰도는 일치한 비유창성 빈도(ND빈도+AD빈도)를 일치한 비유창성 빈도와 불일치한 비유창성 빈도의 합으로 나눈 다음 100을 곱하여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평가자간 일치율은 90.9%였다.

5. 자료의 통계 처리

자료의 통계처리는 PASW Statistics 18.0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전체 아동들의 인지 및 언어점수와 종속변수인 의사소통태도 점수 및 기질특성 점수들 간에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어슨 적률상관분석(Pearson product moment correlation)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 K-WISC-III 점수와 기질 상위요인 중 주의통제 점수 사이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r = .527, p = .017$). 언어 및 인지검사 점수와 다른 종속요인들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1> 참조). 따라서 아동 집단 및 중증도간 기질의 상위요인 중 주의통제 결과 비교 시, 그리고 각 집단 내 변인들 간 상관분석 시 K-WISC-III 점수를 공분산으로 통제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의통제 요인에 포함된 하위요인들, 즉, 자극의 통제, 주의 집중력, 낮은 자극 선호성, 자극 민감성 요인들과 K-WISC-III 점수와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K-WISC-III 점수는 낮은 자극선호를 제외한 모든 요인들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표 2> 참조). 따라서 이 변수들 역시 아동 집단 및 중증도간 기질의 하위요인 결과 비교 시, 그리고 각 집단 내 변인들 간 상관분석 시 K-WISC-III 점수를 공분산으로 통제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의통제 요인에 포함된 하위요인들, 즉, 자극의 통제, 주의 집중력, 낮은 자극 선호성, 자극 민감성 요인들과 K-WISC-III 점수와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K-WISC-III 점수는 낮은 자극선호를 제외한 모든 요인들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표 2> 참조). 따라서 이 변수들 역시 아동 집단 및 중증도간 기질의 상위요인 중 주의통제 결과 비교 시, 그리고 각 집단 내 변인들 간 상관분석 시 K-WISC-III 점수를 공분산으로 통제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 아동들의 언어 및 인지검사 점수와 의사소통태도 점수, 기질의 상위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REVT 수용언어	REVT 표현언어	의사소통 태도점수	외향성	부정적 정서	주의통제
KWISC-III	.612**	.623**	-.281	.008	.022	.527*
REVT 수용언어		.784**	.118	.256	.136	.285
REVT 표현언어			-.191	.140	.252	.144
의사소통 태도점수				-.003	-.036	-.116
외향성					.359	.310
부정적 정서						.195

* $p < .05$, ** $p < .01$

<표 2> 주의통제 하위요인들과 K-WISC-III 점수와의 상관분석 결과

	자극의 통제	주의 집중력	낮은 자극 선호성	자극 민감성
KWISC-III	.495*	.449*	.076	.446*

* $p < .05$

두 집단 간 의사소통태도 점수의 차이를 비교하기 전, 모수검정을 위한 전제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Shapiro-Wilk 정규성 검정을 통해 종속변수가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정규분포 가정을 만족하였으므로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말더듬 중증도에 따른 의사소통태도 점수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말더듬 중증도를 ‘약함’과 ‘중간’으로 구분하였으며 일반 아동 집단과 비교하기 위해 Shapiro-Wilk 정규성 검정과 Levene 의 등분산 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든 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으며,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였기 때문에 모수 검정인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후검정은 Tukey HSD를 사용하였다.

두 집단 간 기질의 상위요인(외향성, 부정적 정서, 주의통제) 점수 비교 시, 상위요인 중 외향성과 부정적 정서에서 두 집단 모두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었으므로

모수검정인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주의통제의 경우, 말더듬 아동 집단이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지 못하였으나($p = .048$) 일반아동 집단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었고($p > .05$), Levene의 등분산 검정 결과 두 집단의 분산이 동일하였으며($F(1, 18) = .001, p > .05$) 인지검사 점수인 K-WISC-III를 공분산으로 통제하여야 하기 때문에 모수 검정인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집단 간 기질의 하위요인 점수 비교 시, 정규분포를 따르는 하위요인의 경우, 모수검정인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주의통제의 하위요인들 중 자극의 통제, 주의 집중력, 자극 민감성은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하위요인인 슬픔은 비모수 검정인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였다.

말더듬 중증도에 따른 기질의 상위요인 점수 비교 시, 외향성과 주의통제는 모든 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고,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였기 때문에 외향성은 일원분산분석을, 주의통제는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부정적 정서의 경우 ‘중간’인 집단이 정규성을 만족하지 못하여 비모수 검정인 Kruskal-Wallis 검정을 실시하였다. 말더듬 중증도에 따른 하위요인 점수 비교 시, 정규분포를 따르는 하위요인의 경우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의통제 하위요인 중 자극의 통제, 주의집중력, 자극 민감성은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하위요인 접근성/긍정적 기대, 슬픔, 반응회복율/진정성은 Kruskal-Wallis 검정을 실시하였다.

일반아동의 의사소통태도와 기질의 상위요인 및 하위요인 간 상관을 분석하기 위하여 피어슨 적률상관분석과 편상관분석(Partial Correlations)을 실시하였다. 말더듬 아동 역시 말더듬 점수, 의사소통태도, 기질의 상위요인 및 하위요인 간 상관을 분석하기 위해 피어슨 적률상관분석과 편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의 의사소통태도

가.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 집단 간 의사소통태도 점수 비교

말더듬 아동 집단의 의사소통태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13.50점과 8.25이었으며, 일반 아동 집단은 7.50점과 5.00이었다. 두 집단 간 의사소통태도 점수를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의 평균 점수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3> 참조). 즉, 말더듬 아동 집단이 일반 아동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의사소통태도 점수를 보였다.

<표 3>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 집단 간 의사소통태도 점수 비교 결과

의사소통태도 점수	평균	표준편차	t	df	p
말더듬 아동	13.50	8.25	2.932	18	.009**
일반 아동	7.50	5.00			

** $p < .01$

나. 말더듬 중증도에 따른 집단 간 의사소통태도 점수 비교

말더듬 중증도가 ‘약함’인 아동의 의사소통태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11.40점과 3.65이었으며, 중증도가 ‘중간’인 아동은 14.40점과 5.50, 일반 아동은 7.70점과 3.09이었다.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 집단의 의사소통태도 점수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_{(2, 17)} = 5.146, p < .05$)(<표 4> 참조). Tukey HSD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일반 아동보다 중증도가 ‘중간’인 말더듬 아동의 의사소통태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5$).

<표 4> 말더듬 중증도에 따른 의사소통태도 점수 비교 결과

말더듬 중증도		평균	표준편차	<i>F</i>	<i>p</i>
말더듬 아동	약함	11.40	3.65	5.146	.018*
	중간	14.40	5.50		
일반 아동		7.70	3.09		

**p* < .05

2.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의 기질 특성

가.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 집단 간 기질 점수 비교

기질의 상위요인 중 외향성 점수의 평균(표준편차)은 말더듬 아동 집단이 4.23점(.40)으로 일반 아동 집단의 4.28점(.54)과 비슷하였으며, 부정적 정서의 경우 말더듬 아동 집단의 평균(표준편차)이 3.87점(.56)으로 일반아동 집단의 평균 4.14점(.56)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의통제의 경우, 말더듬 아동 집단은 평균 4.84점(.67), 일반 아동 집단은 평균 5.38점(.47)으로 일반아동 집단의 점수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두 집단의 기질 점수를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각각 실시한 결과, 외향성과 부정적 정서 점수는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5> 참조).

<표 5 >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 집단 간 외향성, 부정적 정서 점수 비교 결과

상위요인	집단	평균	표준편차	<i>t</i>	<i>df</i>	<i>p</i>
외향성	말더듬 아동	4.23	.40	-.254	18	.802
	일반 아동	4.28	.54			
부정적 정서	말더듬 아동	3.87	.56	-1.085	18	.292
	일반 아동	4.14	.56			

p < .05

<표 6>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 집단 간 기질의 하위요인 점수 비교 결과

상위요인	하위요인	집단	평균	표준편차	검정통계량 ^{c)}	<i>p</i>	
외향성	접근성/ 긍정적 기대	말더듬 아동	4.43	.84	-.003	.997	
		일반 아동	4.43	.33			
	강한 자극 선호성	말더듬 아동	4.13	1.43	.359	.724	
		일반 아동	3.93	1.02			
	미소/웃음	말더듬 아동	5.70	.60	.247	.808	
		일반 아동	5.63	.60			
	활동수준	말더듬 아동	4.06	.96	.137	.893	
		일반 아동	4.00	.91			
	충동성	말더듬 아동	3.68	.71	-.774	.449	
		일반 아동	4.00	1.07			
	수줍음	말더듬 아동	4.63	1.36	.702	.491	
		일반 아동	4.30	.62			
부정적 정서	불안	말더듬 아동	3.32	1.11	-1.324	.202	
		일반 아동	3.92	.91			
	공포	말더듬 아동	4.18	1.10	-1.646	.117	
		일반 아동	5.04	1.21			
	분노/좌절	말더듬 아동	3.32	1.13	-.473	.642	
		일반 아동	3.53	.90			
	슬픔 ^{a)}	말더듬 아동	4.22	.79	-.873	.393	
		일반 아동	4.72	1.50			
	반응회복율/진정 성	말더듬 아동	3.85	1.28	-.570	.576	
		일반 아동	4.15	1.07			
	주의통제	자극의 통제 ^{b)}	말더듬 아동	4.86	.26	.581	.456
			일반 아동	5.15	.26		
주의집중력 ^{b)}		말더듬 아동	5.20	.24	.573	.459	
		일반 아동	4.94	.24			
낮은 자극 선호성		말더듬 아동	4.69	.87	-1.436	.168	
		일반 아동	5.29	1.00			
자극민감성 ^{b)}	말더듬 아동	5.02	.31	2.571	.127		
	일반 아동	5.75	.31				

$p < .05$

- a)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기술통계 결과로 중위수와 사분위수 범위를 제시하였음.
 b)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기술통계 결과로 수정된 평균과 표준오차를 제시하였음.
 c) 슬픔의 경우 검정통계량 *Z* 값을 제시하였으며, 자극의 통제, 주의집중력, 자극민감성은 검정통계량 *F* 값을 제시하였음. 그 외의 하위유형은 검정통계량 *t* 값을 제시하였음.

주의통제의 경우, 공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의 수정된 주의통제 점수의 평균(표준오차)은 말더듬 아동 집단 4.94점(.177), 일반아동 집단 5.29점(.177)이었음

며,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_{(1, 17)} = 1.776, p > .05$).

두 집단 간 기질의 하위요인 점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모든 하위요인들은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 기질의 하위요인 기술통계와 추론통계 결과는 위 <표 6>에 제시하였다.

나. 말더듬 중증도에 따른 집단 간 기질 특성 비교

말더듬 중증도에 따른 기질의 상위요인 점수를 살펴보기 위해 의사소통태도 결과 비교와 마찬가지로 말더듬 아동의 중증도를 ‘약함’과 ‘중간’으로 나누고, 일반 아동 집단과 비교 분석한 결과, 모든 상위요인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세 집단 간 상위요인 점수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말더듬 중증도에 따른 기질의 상위요인 점수 비교 결과

상위요인	말더듬 중증도	평균	표준편차	검정통계량 ^{c)}	<i>p</i>
외향성	약함	4.27	.49	.065	.937
	중간	4.19	.35		
	일반	4.28	.54		
부정적 정서 ^{a)}	약함	4.09	1.47	2.272	.321
	중간	3.89	.33		
	일반	4.22	.84		
주의통제 ^{b)}	약함	4.55	.29	2.392	.123
	중간	5.22	.24		
	일반	5.34	.17		

$p < .05$

a) 기술통계 결과로 중위수와 사분위수 범위를 제시하였음.

b) 기술통계 결과로 수정된 평균과 표준오차를 제시하였음.

c) 부정적 정서의 경우 검정통계량 χ^2 값을 제시하였으며, 외향성과 주의통제는 검정통계량 F 값을 제시하였음.

세 집단 간 하위요인 점수를 분석한 결과, 모든 하위요인들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집단 간 하위요인 점수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8> 말더듬 중증도에 따른 기질의 하위요인 점수 비교 결과

상위요인	하위요인	말더듬 정도	평균	표준편차	검정통계량 ^{c)}	p
의향성	접근성/ 긍정적기대 ^{a)}	약함	4.53	1.07	.117	.891
		중간	4.33	.65		
		일반	4.43	.33		
	강한 자극 선호성	약함	4.46	1.46	.413	.668
		중간	3.80	1.49		
		일반	3.93	1.02		
	미소/웃음	약함	5.90	.23	.594	.563
		중간	5.50	.81		
		일반	5.63	.60		
	활동수준	약함	4.29	.95	.304	.742
		중간	3.83	1.01		
		일반	4.00	.91		
충동성	약함	3.53	.82	.418	.665	
	중간	3.83	.63			
	일반	4.00	1.07			
수줍음	약함	5.10	1.16	1.290	.301	
	중간	4.17	1.51			
	일반	4.30	.62			
부정적 정서	불안	약함	3.13	1.48	1.002	.388
		중간	3.50	.72		
		일반	3.92	.91		
	공포	약함	4.47	1.07	1.613	.288
		중간	3.90	1.16		
		일반	5.03	1.21		
	분노/좌절	약함	3.57	1.35	.402	.675
		중간	3.07	.96		
		일반	3.53	.90		
	슬픔 ^{a)}	약함	4.29	.71	.798	.671
		중간	4.14	.93		
		일반	4.71	1.50		
반응회복율/ 진정성 ^{a)}	약함	4.00	3.00	.106	.949	
	중간	4.33	1.59			
	일반	3.83	1.80			
주의통제	자극의 통제 ^{b)}	약함	4.54	.44	.720	.502
		중간	5.10	.36		
		일반	5.20	.26		
	주의집중력 ^{b)}	약함	5.04	.42	.394	.681
		중간	5.32	.34		
		일반	4.96	.25		
낮은 자극 선호성	약함	4.40	1.19	1.505	.250	
	중간	4.98	.27			
	일반	5.29	1.00			
자극민감성 ^{b)}	약함	4.53	.52	1.999	.168	
	중간	5.38	.43			
	일반	5.81	.31			

p < .05

- a) Kruskal-Wallis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기술통계 결과로 중위수와 사분위수 범위를 제시하였음.
 b)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기술통계 결과로 수정된 평균과 표준오차를 제시하였음.
 c) 접근성/긍정적기대, 슬픔, 반응회복율/진정성의 경우 검정통계량 χ^2 값을 제시하였으며, 그 외의 하위유형은 검정통계량 F 값을 제시하였음.

3. 의사소통태도와 기질의 관계

가. 일반 아동의 의사소통태도와 기질의 상관관계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의사소통태도 점수와 기질의 상위요인과 하위요인 점수 간에 유의미한 상관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의사소통 태도와 기질의 상위요인인 주의통제의 상관계수가 .448로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였다(성태제 · 시기자, 2007). 의사소통태도와 기질의 하위요인에서도 주의통제의 하위요인인 자극의 통제($r = .554$)와 낮은 자극 선호성($r = .404$), 자극민감성($r = .480$)에서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였다. 기질의 상위요인들 간에는 외향성과 주의통제가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r = .605$). 검정결과는 <표 9>와 <표 10>에 제시하였다.

<표 9> 일반 아동의 의사소통태도 점수와 기질의 상위요인 점수의 상관분석 결과

	의사소통태도	외향성	부정적정서
외향성	.330		
부정적정서	.078	.130	
주의통제 ^{a)}	.448	.605	.148

$p < .05$

a) 편상관분석을 통해 얻은 상관계수 값을 제시하였음.

<표 10> 일반 아동의 의사소통태도 점수와 기질의 하위요인 점수의 상관분석 결과

	하위요인	상관계수	p
의사소통태도	접근성/긍정적 기대	.372	.290
	강한 자극 선호성	.350	.321
	미소/웃음	.073	.840
	활동수준	.095	.795
	충동성	.301	.398
	수줍음	-.219	.543
	불안	.182	.614
	공포	-.056	.877
	분노/좌절	.124	.732
	슬픔	.113	.757
	반응회복율/진정성	.117	.748
	자극의 통제 ^{a)}	.554	.121
	주의집중력 ^{a)}	-.183	.638
	낮은 자극 선호성 ^{a)}	.404	.281
자극민감성 ^{a)}	.480	.191	

$p < .05$

a) 편상관분석을 통해 얻은 상관계수 값을 제시하였음.

나. 말더듬 아동의 말더듬 점수와 의사소통태도 및 기질의 상관관계

말더듬 아동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의사소통태도 점수와 기질의 상위요인 점수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P-FA-II』의 말더듬 점수와 의사소통태도 점수, 기질의 상위요인 점수 간 상관을 살핀 결과 역시 변수 간 유의한 상관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말더듬 점수와 의사소통태도 점수 간에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r = .620$), 말더듬 점수와 주의통제의 정적 상관도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r = .444$). 또한 상위요인인 외향성과 부정적 정서 점수 간 상관계수가 .665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표 11> 말더듬 아동의 말더듬 점수, 의사소통태도 점수와 기질의 상위요인 점수의 상관분석 결과

	말더듬 점수	의사소통태도	외향성	부정적 정서
의사소통태도	.620			
외향성	-.085	-.217		
부정적 정서	.156	.170	.665*	
주의통제 ^{a)}	.444	-.023	-.069	.442

* $p < .05$

a) 편상관분석을 통해 얻은 상관계수 값을 제시하였음.

기질의 하위요인 역시 의사소통태도 점수와 말더듬 점수 간에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2>, <표 13> 참조). 하지만 의사소통태도 점수와 강한 자극 선호성 점수($r = -.455$), 말더듬 점수와 강한 자극 선호성 점수($r = -.412$), 말더듬 점수와 불안 점수($r = .423$), 그리고 말더듬 점수와 낮은 자극 선호성 점수($r = .618$) 사이에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였다.

<표 12> 말더듬 아동의 의사소통태도 점수와 기질의 하위요인 점수의 상관분석 결과

	하위요인	상관계수	<i>p</i>
의사소통태도 점수	접근성/긍정적 기대	.193	.593
	강한 자극 선호성	-.455	.188
	미소/웃음	-.072	.844
	활동수준	-.194	.591
	충동성	-.329	.353
	수줍음	-.313	.378
	불안	.259	.470
	공포	.025	.945
	분노/좌절	-.195	.589
	슬픔	.037	.919
	반응회복율/진정성	-.288	.419
	자극의 통제 ^{a)}	-.031	.936
	주의집중력 ^{a)}	-.136	.728
	낮은 자극 선호성 ^{a)}	.196	.613
	자극민감성 ^{a)}	-.083	.833

$p < .05$

a) 편상관분석을 통해 얻은 상관계수 값을 제시하였음.

<표 13> 말더듬 아동의 말더듬 점수와 기질의 하위요인 점수의 상관분석 결과

	하위요인	상관계수	<i>p</i>
말더듬 점수	접근성/긍정적 기대	.126	.728
	강한 자극 선호성	-.412	.237
	미소/웃음	-.244	.496
	활동수준	-.245	.494
	충동성	.268	.454
	수줍음	-.345	.329
	불안	.423	.223
	공포	-.040	.913
	분노/좌절	-.148	.683
	슬픔	-.060	.987
	반응회복율/진정성	-.142	.697
	자극의 통제 ^{a)}	-.081	.835
	주의집중력 ^{a)}	.006	.988
	낮은 자극 선호성 ^{a)}	.618	.076
	자극민감성 ^{a)}	.325	.394

$p < .05$

a) 편상관분석을 통해 얻은 상관계수 값을 제시하였음.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말더듬 아동의 의사소통태도와 기질 특성을 일반 아동과 비교하고, 말더듬 아동의 의사소통태도와 기질 특성, 일반 아동의 의사소통태도와 기질의 관련성과 말더듬 아동의 말더듬 점수와 기질의 관련성을 밝혀 말더듬 아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유창성을 습득할 수 있는 말더듬 치료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말더듬 아동 집단과 일반 아동 집단 간 의사소통태도를 비교한 결과, 말더듬 아동 집단의 의사소통태도가 일반 아동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말더듬 중증도가 ‘약함’인 집단과 ‘중간’인 집단으로 나누고 일반 아동과 의사소통태도 점수를 비교한 결과, 세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검정 결과 중증도가 ‘중간’인 아동 집단이 일반 아동 집단보다 의사소통태도가 유의하게 부정적이었다. 셋째, 말더듬 아동 집단과 일반 아동 집단의 기질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기질의 상위요인(외향성, 부정적 정서, 주의통제)과 하위요인 점수들을 각각 비교한 결과, 기질의 상위요인과 하위요인에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넷째, 말더듬 아동을 중증도가 ‘약함’인 집단과 ‘중간’인 집단으로 나누고 일반 아동과 기질의 상위요인과 하위요인을 각각 비교한 결과, 모든 상위요인과 하위요인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섯째,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의사소통태도 점수와 기질의 상위요인과 하위요인 점수 간에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의사소통태도와 기질의 상위요인인 주의통제의 상관계수가 .448로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의사소통태도와 기질의 하위요인 간에도 주의통제의 하위요인인 자극의 통제($r = .554$)와 낮은 자극 선호성($r = .404$), 자극민감성($r = .480$)에서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였다. 말더듬 아동의 경우, 의사소통태도와 기질의 상위요인과 하위요인 간에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강한 자극 선호성($r = -.455$)에서 비교적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P-FA-II』의 말더듬 점수와 의사소통태도 점수, 기질의 상위요인과 하위요인 점수 간 상관을 살핀 결과 변수 간 유의한 상관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말더듬 점수와 의사소통태도 점수 간에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r = .620$), 말더듬 점수와 기질의 상위요인인 주의통제의 정적 상관도 다소 높게

나타났다($r = .444$). 또한 말더듬 점수와 하위요인인 강한 자극 선호성($r = -.412$)에서 비교적 높은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불안($r = .423$)과 낮은 자극 선호성($r = .618$)에서 비교적 높은 정적상관을 보였다.

1. 논의

가.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의 의사소통태도 점수와 말더듬 중증도에 따른 의사소통태도 점수 비교

본 연구 결과, 말더듬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더 부정적인 의사소통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령기 말더듬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의사소통태도가 더 부정적이었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을 지지한다(박진원·권도하, 2009; 김우정, 2012; 이순옥, 2010; Bloodstein, 1993; Bernardini et al., 2009; De Nil & Brutten, 1991; Kawai et al., 2012). 학령기 아동은 말을 더듬은 이후 지속기간이 학령 전 아동보다 상대적으로 길며 말더듬으로 인해 다양한 부정적인 경험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자신의 말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Guitar(1998)는 말을 더듬은 사람의 감정과 태도는 핵심행동처럼 장애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말더듬 평가와 치료 시에 의사소통태도는 기본적으로 살펴봐야할 요소로 사료된다.

말더듬 중증도에 따른 의사소통태도 점수를 비교한 결과 ‘중간’ 중증도의 아동 집단이 일반 아동 집단보다 더 부정적인 의사소통태도를 보였다. 이는 말더듬이 심할수록 더 부정적인 의사소통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말을 더듬는 사람들의 의사소통태도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말더듬 중증도에 따른 의사소통태도 점수를 비교하였을 때 중증도가 높을수록 의사소통태도 점수가 유의하게 부정적이었다고 보고하거나(고영옥·권도하, 2010), 유의한 차이가 없더라도 중증도와 의사소통태도 사이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Vanryckeghem et al, 2001). 이러한 결과는 말더듬은 사람의 연령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으며 본 연구결과도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전반적으로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약함’ 중증도의 아동 집단은 의사소통태도 점수의 평균이 일반 아동집단 보다 높았고 중증도가 ‘중간’인 집단보다 낮았지만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연구 참여자 수가 적었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고, ‘약함’ 중증도의 경우 말더듬으로 인한 부정적인 경험이 ‘중간’ 중증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거나, 일반 아동과는 달리 의사소통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인 경험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학령전기 말더듬 아동의 중증도 간 의사소통태도를 비교했던 이지숙 외(2013)와 학령기 말더듬 아동을 대상으로 중증도 간 의사소통태도를 비교했던 김우정(2012) 역시 ‘약함’과 ‘중간’ 중증도 간에 의사소통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말더듬은 사람의 말에 대한 태도는 말로 인해 겪게 되는 부정적인 경험의 빈도뿐만 아니라 경험의 특성과 관련 있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De Nil & Brutten, 1991) 학령기 ‘약함’ 중증도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보다 심도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는 중증도가 ‘심함’인 아동 집단이 없었으므로 ‘약함’과 ‘심함’ 중증도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를 보일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는 말더듬이 감소되면 의사소통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개선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방법의 말더듬 치료가 이루어진 이후 말더듬 감소와 함께 의사소통태도 점수가 감소하였음을 보고하여(김효정, 2003; 김효정 · 권도하, 2004; 박진원, 2008; 장혜주, 2013) 이러한 결론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나.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의 기질 차이 비교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의 기질의 상위요인과 하위요인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어떠한 기질 특성도 집단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의 기질에 차이가 있었음을 보고한 연구결과들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실제 CBQ를 사용하여 학령 전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을 비교했던 Eggers, De Nil & Vanden Bergh(2009)는 말더듬 아동 집단이 일반 아동 집단에 비해 부정적 정서가 높았고 주의통제가 낮았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차이는 실험설계방식의 차이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선행연구들은 일반적으로 학령 전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거나(이은주·심현섭, 2007; Anderson et al., 2003) 대상아동의 연령범위가 넓어 학령 전 아동과 학령기 아동이 모두 포함된 경우(Eggers et al., 2009)가 대다수였으며, 아동의 말더듬 중증도 또한 다양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초등 저학년인 6-8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증도 또한 ‘약함’

과 ‘중간’으로 제한되었다. Eggers et al.(2009)이 보고한 말더듬 아동의 높은 부정적 정서는 말더듬으로 인한 부정적인 경험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말에 대한 부담과 공포, 불안 등의 환경적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중증도가 심한 아동이 포함될수록 이러한 기질적 특성이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의통제의 경우, 말더듬 중증도가 높을수록 주의통제 점수가 낮은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던 기질의 상위요인으로 보고되었다(Kraft et al., 2014). 주의통제가 아동의 집중 능력과 자신의 행동이나 반응을 억제할 수 있는 정도를 반영하는 기질 특성이라는 것을 볼 때(권민균 외, 2008) 말더듬 중증도가 약한 아동은 중증도가 심한 아동에 비해 자신의 말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중증도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또한 주의통제의 하위요인인 자극의 통제와 주의집중, 자극의 민감성은 K-WISC-III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어 결과적으로 상위요인인 주의통제 역시 K-WISC-III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아동의 인지적인 능력이 높을수록 주의통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말더듬 아동의 기질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기질의 상위요인 중 주의통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Rothbart & Bates(2006)에 의하면 주의통제는 타고난 기질요인으로 유전적인 영향을 받지만 다양한 경험이나 주위 환경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으며(이유진·정은정, (2013)에서 재인용),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의를 조절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발달이 시작한 후에는 청소년기에 걸쳐서까지 안정적인 특성을 보이기(장혜인, 2010) 때문에 말더듬 진단과 치료 예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의사소통태도와 기질의 상관관계

본 연구 결과에서는 일반 아동의 의사소통태도 점수와 기질의 상위요인과 하위요인 점수 간에 유의한 상관이 없었으며, 말더듬 아동이나 『P-FA-II』의 말더듬 점수와 의사소통태도 점수, 기질의 상위요인 및 하위요인 점수 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상관계수만을 고려하였을 때 두 집단의 특성이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일반아동의 경우, 의사소통태도와 주의통제 간에는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을 보

였다. 이는 주의통제 하위요인인 자극의 통제와의 상관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이며, 낮은 상황이나 지시상황에서 부정적인 접근 반응을 억제하는 능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말더듬 아동 경우, 의사소통태도 점수와 외향성의 하위요인인 강한 자극 선호성 점수에서 유의하지는 않지만 비교적 높은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즉, 강한 자극 선호성이 증가할수록 의사소통태도 점수가 더 감소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질의 상위요인 특성 중 외향성이 증가할수록 부정적 정서도 유의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아동의 외향적인 기질로 인해 상대적으로 자신의 말과 관련된 부정적인 경험의 빈도가 높고 부정적인 경험의 특성이 더 다양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경험들이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말더듬 점수와 의사소통태도 간에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중증도와 의사소통태도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는 선행연구의 결과(Vanryckeghem et al., 2001)를 어느 정도 뒷받침해준다고 할 수 있다. 말더듬 점수와 주의통제 간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인 것은 주의통제의 하위요인 중 낮은 자극 선호성과 말더듬 점수와의 상관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말더듬 점수와 강한 자극 선호성에서도 비교적 높은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쉽게 적응하는 기질을 갖는 경우 말더듬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이고 의사소통태도도 긍정적인 경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더듬 점수와 불안에서는 비교적 높은 정적상관을 나타냈는데 부정적 정서인 불안 정도가 높을수록 말더듬 빈도가 증가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집단 간 비교 결과를 볼 때 말더듬 아동 집단이 일반 아동 집단에 비해 낮은 자극을 더 선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낮은 자극 선호성이 높을수록 생활 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환경 자극에 더 많은 반응을 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러한 반응이 말더듬 빈도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고 예측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말더듬 중증도가 ‘약함’과 ‘중간’인 아동들만 포함시켰으므로 결과의 해석 및 일반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를 초등학교 저학년인 1, 2학년으로 제한하여 의사소통태도와 기질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추후 초등학교 전체 학년의 말더듬

아동을 대상으로 학년에 따라 의사소통태도와 기질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말더듬 중증도를 말더듬 ‘심함’을 제외한 ‘약함’과 ‘중간’, ‘일반’으로만 나누어 의사소통태도와 기질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러므로 추후 말더듬 중증도 집단에 말더듬 ‘심함’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 결과는 기질의 상위요인과 하위요인의 차이와 상관에서 대상자 수가 적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 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 대상자를 추가하여 연구 신뢰도를 높이고 일반화 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 언어 및 인지검사 점수와 다른 종속요인들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K-WISC-III 점수와 기질 상위요인 중 주의통제 점수 사이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인지가 주의통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추후 대상자 선정 시 K-WISC-III 점수의 분포를 고려하여 연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 수집 시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공식적인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 연구자와 주양육자와의 상담결과 아동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중’이상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통제가 이루어진다면 의사소통태도와 기질의 각 요인들과의 관계에서 보다 신뢰 있는 연구결과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고영옥·권도하(2010). 말더듬 심도에 따른 불안 및 태도 특성. *언어치료연구*, 19(1), 99-118.
- 고영옥(2011). 한국 말더듬 성인과 비말더듬 성인의 의사소통태도. *재활심리연구*, 18(1), 111-125.
- 곽금주·박혜원·김청택(2001). *한국웍슬리아동지능검사, K-WISC-III*. 서울: 특수 교육.
- 권민균·김정민·최형성(공역)(2008). *아동발달(4판)*. 서울: 시그마프레스.
- 김영태·신문자(2004). *우리말조음음운평가, U-TAP*. 서울: 학지사
- 김영태·홍경훈·김경희·장혜성·이주연(2009).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 REVT*. 서울: 서울장애인복지관.
- 김우정(2012). 학령기 말더듬 아동의 불안 및 의사소통태도 특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2008). 영아의 언어능력과 제반 변인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효정(2003). 그룹치료가 말더듬 성인의 유창성과 말더듬에 대한 태도 개선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정·권도하(2004). Valsalva-말더듬 치료법이 말더듬 성인의 말더듬 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례연구. *언어치료연구*, 13(2), 129-142.
- 민경미(2003). 학령전기 말더듬 아동과 정상아동의 비유창성 인식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원(2008). 리드믹한 구어훈련이 아동 말더듬의 유창성과 의사소통태도 개선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원·권도하(2009). 학령기 말더듬아동의 심리 정서적 의사소통 태도에 관한 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25(2), 39-56.
- 박혜원·곽금주·정철주(1994). 영아의 기질과 Fagan 지능검사 수행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7(1), 98-109.
- 성태제·시기자(2007). *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 심현섭·신문자·이은주(공역)(2010). *Dr. Manning의 유창성 장애*. 서울: 시그마프레스.

- 심현섭·신문자·이은주(2010). *파라다이스 유창성검사II*. 서울: 파라다이스 복지재단.
- 송명자(1995). 발달이론체계의 최근동향개관. *동아대학교 동아교육논총*, 21(11), 29-47.
- 송길연·장유경·이지연·정윤경(공역)(2012). *발달심리학*. 서울: Cengage Learning.
- 안경숙(2001). 초등학생의 친한 친구 사귀기 과정.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양수정(2007). 영아의 기질에 따른 또래간 상호작용의 차이연구.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정금(2009). 교사가 보고하는 유아기질척도의 타당화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영미·박혜원·이귀옥(2004). 유아의 기질과 가정환경 및 유아의 부적응 행동간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24, 311-333.
- 이경옥(2004). 유아기질척도(CBQ)의 타당화를 위한 기초연구. *유아교육연구*, 24(5), 101-120.
- 이순옥(2010). 학년에 따른 학령기 말더듬 아동과 기능적 조음장애 아동의 의사소통 태도 변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승환(2005). *유창성장애*. 서울: 시그마프레스.
- 이유진·정은정(2013). 학령전기 아동의 의도적 통제의 매개효과: 모의 양육태도와 학령전기 아동의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32(1), 231-249.
- 이은주·심현섭(2007). 취학 전 말더듬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기질 및 양육행동 특성. *언어척각장애연구*, 25(2), 39-56.
- 이지숙(2009). 3-5세 말더듬아동의 의사소통태도 특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숙·심현섭·이수복(2013). 3-5세 일반 아동과 말더듬 아동의 의사소통태도 특성. *특수교육*, 12(3), 5-22.
- 이형경(2007). 유아의 상상성향(상상 친구, 상상놀이)과 상상 친구 유무에 따른 여가활동, 기질 및 문제행동 분석.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유경·이근영(2006). 영아의 기질과 조기 어휘 습득의 관계. *아동학회지*, 27(6), 261-274.

- 장혜주(2013). 의사소통 중심 스피치 프로그램이 말더듬 아동의 유창성과 의사소통 태도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수연(2002). 아동기질과 부모양육 형태에 따른 행동발달의 차이: 발달적 맥락에 따른 ‘조화 적합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희숙(2005). 자아중진이 말더듬 성인의 말더듬인지 및 행동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경숙(2007). *아동발달심리학*. 경기: 교문사.
- 최다혜(2003). 말더듬 성인의 말더듬 정도와 의사소통태도 간 상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경미(1998). 초등학교 아동의 친구관계와 학교 적응관계. 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llport, G. W.(1961). *Pattern and growth in personalit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Andrews, G., & Cutler, J.(1974). Stuttering therapy: The relation between changes in symptom level and attitude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39*, 312 - 319.
- Anderson, J. D., Pellowski, M. W., Conture, E. G., & Kelly, E. M.(2003). Temperamental characteristics of young children who stutter.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6*, 1221-1233.
- Bates, J. E., Freeland, A. B., & Lounsbury, M. L.(1979). Measurement of infant difficultness. *Child Development, 50*, 794-803.
- Bernardini, S., Vanryckeghem, M., Brutton, G. J., Cocco, L., & Zmarich C. (2009). Communication attitude of Italian children who do and do not stutter.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42*(2), 155-161.
- Blood, G. W., Blood, I. M., Glen, T., & Gabel, R.(2001). Communication apprehension and self-perceived communication competence in adolescents who stutter.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26*(3), 161-178.
- Bloodstein, O.(1987). *A handbook on stuttering*. Chicago, IL: National Easter Seal Society.
- Bloodstein, O.(1993). Communication attitudes of school-age stutterers. *Journal*

- of Fluency Disorders, 18, 403-405.*
- Brutten, G. J.(1985). Communication Attitude Test. Unpublished manuscript.
- Brutten, G. J.(1986). Post scripts: The two-factor theory. In G. H. Shames & H. Rubin (Eds.), *Stuttering: Then and now*. Columbus, OH: Merrill Publishing Company.
- Brutten, G., & Vanryckeghem, M.(2007). *Behavior Assessment Battery for school-age children who stutter*. San Diego, CA: Plural Publishing Inc.
- Buss, A. H., & Ploman, R.(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
- Conture, E., Kelly, E., & Walden, T.(2013). Temperament Speech and language: An overview.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46*, 125-142.
- De Nil, L., & Brutten, G.(1991). Speech-associated attitudes of stuttering and nonstuttering children.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4*, 60-66.
- Derryberry, D., & Rothbart, M. K.(1988). Arousal, affective, and attentional components of adult tempera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953 - 66.
- Eggers, K., De Nil, L. F., & Vanden Bergh, B. H.(2009). Factorial temperament structure in stuttering, voice disordered, an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52*, 1610-1622.
- Eggers, K., De Nil, L. F., & Vanden Bergh, B. H.(2010). Temperament dimensions in stuttering an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35*, 355-372.
- Embrechts, M., Ebben, H., Franke, P., & van de Poel, C.(2000). Temperament: A comparison between children who stutter and children who do not stutter. In H. G. Bosshardt, J. S. Yaruss, & H. F. M. Peters (Eds.), *Fluency Disorders: Theory, research, treatment and self-help*. Proceedings of the Third World Congress on Fluency Disorders in Nyborg, Denmark.
- Fowlie, G. M., & Cooper, B. B.(1978). Traits attributed to stuttering and

- nonstuttering children by their mothers.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3, 233-246.
- Goldsmith, H. H., & Campos, J. J.(1982). Towards a theory of infant temperament. In R. Emde & R. Hartman (Eds.), *The development of attachment and affiliative system*. NY: Plenum.
- Guitar, B. (1998). *Stuttering: An integrated approach to its nature and treatment*. Philadelphia: Lipincott Williams & Wilkins.
- Kawai, N., Healey, E. C., Nagasawa, T., & Vanryckeghem, M.,(2012). Communication attitudes of Japanese school-age children who stutter.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45, 348-354.
- Kraft, S. J., Ambrose, N., & Chon, H.(2014). Temperament and environmental contributions to stuttering severity in children: The role of effortful control. *Seminars in Speech and Language*, 35(2), 80-94.
- McDevitt, S. C., & Carey, W. B.(1978). The measurement of temperament in 3-7 year old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 Psychiatry*, 19, 245-253.
- Miller, S. M., & Watson, B. C.(1992).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attitude anxiety and depression in stutters and nonstutters.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35, 789-798.
- Putnam, S. P., & Rothbart, M. K.(2006). Development of Short and Very Short Forms of the 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7(1), 103-113.
- Quesal, R. W., & Shank, K. H.(1978). Stutters and others: A comparison of communication attitudes.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3, 247-252.
- Rothbart, M. K. (1981). Measurement of temperament in infancy. *Child Development*, 52, 569 - -578.
- Rothbart, M., & Bates, J. (2006). Temperament. In N. Eisenberg, W. Damon, & L. M. Richard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6th ed.). Hoboken, NJ US: John Wiley & Sons Inc.
- Rothbart, M. K., & Derryberry, D.(1981). Development of individual differences

- in temperament. In M. E. Lamb & A. Brown (Eds.), *Advances in developmental psychology*, 1, Hillsdale, NJ: Erlbaum.
- Rothbart, M. K.(1996). *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Version 1).
- Rothbart, M. K.(2000). *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Teacher Form*.
- Thomas, A., & Chess, S.(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Y: Brenner/MazelPress.
- Van Riper, C.(1982). *The treatment of stutter*. EC: Prentice-Hall, Inc.
- Vanryckeghem, M., & Brutten, G. J.(2007). *Kiddy-CAT*. San Diego, CA: Plural Publishing.
- Vanryckeghem, M., & Brutten, G. J.(2011). The Big CAT: A normative and comparative investigation of the communication attitude of nonstuttering and stuttering adults.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44, 200-206.
- Vanryckeghem, M., & Brutten, G. J.(2012). A Comparative investigation of the Big CAT and Erickson S-24 measures of speech associated attitude.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45, 340-347.
- Vanryckeghem, M., Brutten, G. J., & Hernandez, L. M.(2005). A comparative investigation of the speech-associated attitude of preschool and kindergarten children who do and do not stutter.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30, 307-318.
- Vanryckeghem, M., Hylebos, C., Brutten, G. J., & Peleman, M.(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attitude and emotion of children who stutter.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26(1), 1-15.
- Wakaba, Y.(1998). Research on temperament of children who stutter with early onset. In E. C. Healy, & H. F. M. Peters (Eds.), *Stuttering: Proceedings of the Second World Congress on Fluency Disorders*. Nijmegen, The Netherlands: University Press Nijmegen.
- Yairi, E., & Ambrose, N. G.(2005). *Early Childhood Stuttering: For clinicians by clinicians*. Austin, TX: Pro-Ed.

<부록 1> 대상자 정보

대상자	연령	학년	성별	말더듬 중증도	K-WISC- III	REVT 수용	REVT 표현	
S1	6.11	1	여	약함	108	96	89	
S2	7.1	1	남	약함	97	104	105	
S3	8.4	2	여	약함	92	105	99	
S4	8.1	2	여	약함	97	104	90	
말더듬 아동 (n=10)	S5	7.8	1	남	약함	116	124	112
	S6	8.5	2	여	중간	117	107	102
	S7	7.9	1	남	중간	106	113	101
	S8	8.6	2	남	중간	121	111	101
	S9	8.11	2	남	중간	140	193	158
	S10	6.8	1	남	중간	130	106	98
SN1	7.9	1	여		105	109	102	
SN2	8.2	2	여		128	126	110	
SN3	7.11	1	여		117	108	101	
SN4	7	1	여		113	108	117	
일반 아동 (n=10)	SN5	7.9	1	여		111	95	110
	SN6	7.6	1	남		123	101	95
	SN7	7.4	1	남		140	141	173
	SN8	7.6	1	남		132	133	109
	SN9	6.11	1	남		131	105	109
	SN10	8.7	2	남		123	115	113

<부록 2> CBQ 기질 구성요소

CBQ 상위요인	CBQ 하위요인의 정의 및 문항의 예	문항번호 (R-역척도)
의향성 (Surgency)	접근성/긍정적 기대(Approach/Positive Anticipation) -즐거운 활동에 대한 흥분과 긍정적인 기대의 정도 예: 6. 재미있는 활동 전에 너무 흥분해서 앉아 있는 것을 어려워한다.	6, 15, 46, 58, 90R, 92R
	강한 자극 선호성(High Intensive Pleasure) -높은 자극의 정도와 비율, 복잡성과 새로움, 부조화를 동반한 기쁨과 즐거움 예: 4. 높은 미끄럼틀을 타거나 다른 모험적인 활동들을 좋아한다.	4, 10, 33, 69, 78R, 88
	미소/웃음(Smiling & Laughter) -자극정도나 복잡성, 부조화에 따른 변화에 대한 긍정적 정서 예: 55. 혼자 놀면서 가끔 웃거나 킁킁 거린다.	19R, 48R, 55, 77, 79, 80R
	활동수준(Activity Level) -움직임 속도나 정도를 포함한 대근육 활동의 수준 예: 1.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느라 항상 서두르는 것처럼 보인다.	1, 12, 18R, 22, 50R, 85, 93R
	충동성(Impulsivity) -자극에 대한 반응 시작 속도 예: 7. 어떤 활동인지 생각하지 않고 활동을 서두르는 편이다.	7, 28, 36R, 43R, 51, 82R
	수줍음(Shyness) -새롭고 낯선 상황에서 더디고 억제된 접근 예: 37. 때때로 오래 알고 지내온 사람들 앞에서도 수줍어한다.	11R, 37, 42, 52, 60R, 70
부정적 정서 (Negative Affection)	불안(Discomfort) -빛, 움직임, 소리, 촉감 등과 같은 여러 감각 자극에 대한 부정적 정서 예: 9. 춥거나 젖었을 때 매우 불편해한다.	3R, 9, 29, 49R, 64, 91R
	공포(Fear) -예측된 고통이나 고난, 잠재적인 위협적인 상황과 관련된 불안이나 걱정, 신경과민을 포함한 부정적 정서 예: 17. 강도나 “귀신”에 대해 들으면 무서워한다.	17, 23, 35R, 41, 63, 68R
	분노/좌절(Anger/Frustration) -진행 중인 과제에 대한 방해나 성공을 방해하는 것과 관계되는 부정적 정서 예: 2. 자러가야 한다고 하면 화를 낸다.	2, 14, 30, 40, 61R, 87

	슬픔(Sadness) 괴로움, 실망, 손실로 인한 부정적 정서와 기분저하, 활기저하의 정도 예: 8. 좋아하는 장난감을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리면 슬프게 운다.	8, 20, 27, 31, 54R, 56R, 74R
	반응회복율/진정성(Falling Reactivity & Soothability) 괴로움, 흥분이나 일반적 각성으로 부터의 회복 정도 예: 44. 화가 나도 몇 분 안에 누그러진다.	25R, 34R, 44, 59, 66, 75R
주의통제 (Effortful Control)	자극의 통제(Inhibitory Control) 지시상황 또는 낯선 상황에서 부적절한 접근반응을 계획하고 억제하는 능력 예: 38.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릴 수 있다.	38, 45, 53R, 67, 73, 81
	주의집중력(Attentional Focused) 완수해야 할 과제와 관련해 주의를 지속하는 경향 예: 62. 책에 그림을 그리거나 색칠할 때 강한 집중력을 보인다.	16R, 21R, 62, 71, 84R, 89
	낮은 자극 선호성(Low Intensity Pleasure) 낮은 자극의 정도와 비율, 복잡성과 새로움, 부조화를 동반한 기쁨과 즐거움 예: 26. 따뜻한 목욕을 즐긴다.	26, 39, 57, 65, 72, 76, 86, 94
	자극 민감성(Perceptual Sensitivity) 외부환경으로부터 약하고 낮은 자극에 대한 감지 정도 예: 5. 자신이 만지는 사물이 부드러운지 또는 거친지 의식한다.	5, 13, 24, 32, 47, 83R

<부록 3> 의사소통태도 검사지

의사소통태도검사

(Communication Attitude Test-Revised)

(De Nil & Brutten, 1991; 차현·전희정 역, 2013)

이름: _____ (남/여) 검사일: _____ 생활연령: _____

각 문장을 주의 깊게 읽으세요. 자신의 말에 대해 이야기하는 문장이 맞는지 틀린지 답해주세요. 만약 말하는 문장이 맞다고 생각하면 “예”에 동그라미 하세요. 자기 자신에게 틀리다고 생각하면 “아니오”에 동그라미 하세요.

자신의 말에 대한 문장에 동의하면 “예” 동의하지 않으면 “아니오”라고 답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기에는 좋거나 나쁜 대답이 없어요. 단지 자신의 말에 대해 생각하는 것에 “예” 혹은 “아니오”라고 대답하면 돼요.

연습을 해 볼게요. 다음의 문장을 읽고 자신의 말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에 “예” 또는 “아니오”에 동그라미 하세요.

나는 너무 빨리 말한다	예	아니오
나는 충분히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다.	예	아니오

질문이 있나요? 만약 문장이나 문장에 있는 단어의 의미가 이해되지 않으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 | | | |
|--------------------------------|---|-----|
| 1. 나는 말을 잘 못해요. | 예 | 아니오 |
| 2. 나는 수업시간에 질문을 잘 해요 | 예 | 아니오 |
| 3. 나는 말할 때 가끔 말이 잘 안나오는 것 같아요. | 예 | 아니오 |
| 4. 내가 말하는 방식에 대해 사람들이 걱정해요. | 예 | 아니오 |

- | | | |
|-------------------------------------|---|-----|
| 5. 나는 수업시간에 발표하는 것이 다른 애들보다 더 어려워요. | 예 | 아니오 |
| 6. 우리 반 아이들은 내가 웃기게 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 예 | 아니오 |
| 7. 나는 내가 말하는 방식이 좋아요. | 예 | 아니오 |
| 8. 사람들이 가끔 나 대신 내 말을 끝맺어 줘요. | 예 | 아니오 |
| 9. 우리 부모님은 내가 말하는 방식을 좋아해요. | 예 | 아니오 |
| 10. 나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쉽게 말할 수 있어요. | 예 | 아니오 |
| 11. 나는 언제나 말을 잘해요. | 예 | 아니오 |
| 12. 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어려워요. | 예 | 아니오 |
| 13. 나는 다른 아이들처럼 말하지 않아요. | 예 | 아니오 |
| 14. 나는 내가 말하는 방식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요. | 예 | 아니오 |
| 15. 나는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 예 | 아니오 |
| 16. 내 말은 쉽게 잘 나와요. | 예 | 아니오 |
| 17. 나는 낯선 사람들과 말할 때 말이 더 안 나와요. | 예 | 아니오 |
| 18. 다른 아이들이 나처럼 말을 하고 싶어해요. | 예 | 아니오 |
| 19. 내가 말을 하면 아이들이 놀려요. | 예 | 아니오 |
| 20. 나는 말하는 것이 쉬워요. | 예 | 아니오 |
| 21. 다른 사람에게 내 이름을 말하는 것이 어려워요. | 예 | 아니오 |
| 22. 말하기 어려운 낱말이 많아요. | 예 | 아니오 |
| 23. 나는 거의 모든 사람과 말을 잘 해요. | 예 | 아니오 |
| 24. 나는 가끔 말하는 게 어려워요. | 예 | 아니오 |
| 25. 나는 쓰는 것 보다 말하는 것이 좋아요. | 예 | 아니오 |
| 26. 나는 말하는 것을 좋아해요 | 예 | 아니오 |

- | | | |
|----------------------------------|---|-----|
| 27. 내가 다른 아이들처럼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 예 | 아니오 |
| 28. 나는 낱말이 쉽게 나오지 않아요. | 예 | 아니오 |
| 29. 나는 전화로 이야기할 때 말이 잘 나와요. | 예 | 아니오 |
| 30.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방식을 좋아하지 않아요. | 예 | 아니오 |
| 31.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신해서 말하게 해요. | 예 | 아니오 |
| 32. 나는 수업시간에 소리 내서 읽는 것이 쉬워요. | 예 | 아니오 |

1	2	3	4	5	6	7	NA
매우 그렇지 않다	상당히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어느쪽도 아니다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되지 않음

우리 아이는:

-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느라 항상 서두르는 것처럼 보인다.
1 2 3 4 5 6 7 NA
- 자러가야 한다고 하면 화를 낸다.
1 2 3 4 5 6 7 NA
- 아파도 별로 힘들어 하지 않는다.
1 2 3 4 5 6 7 NA
- 높은 미끄럼틀을 타거나 다른 모험적인 활동들을 좋아한다.
1 2 3 4 5 6 7 NA
- 자신이 만지는 사물이 부드러운지 또는 거친지 의식한다.
1 2 3 4 5 6 7 NA
- 재미있는 활동 전에 너무 흥분해서 앉아 있는 것을 어려워한다.
1 2 3 4 5 6 7 NA
- 어떤 활동인지 생각하지 않고 활동을 서두르는 편이다.
1 2 3 4 5 6 7 NA
- 좋아하는 장난감을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리면 슬프게 운다.
1 2 3 4 5 6 7 NA
- 출거나 젖었을 때 매우 불편해한다.
1 2 3 4 5 6 7 NA
- 난폭하고 무모하게 놀기를 좋아해서 다칠 수도 있다.
1 2 3 4 5 6 7 NA
- 어떤 사람과 있든 편안해 보인다.
1 2 3 4 5 6 7 NA
- 집안 여기저기를 걸어다니기보다는 주로 뛰어다니는 편이다.
1 2 3 4 5 6 7 NA
- 부모님이 새 옷을 입으면 알아챈다.
1 2 3 4 5 6 7 NA
-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면 짜증을 낸다.
1 2 3 4 5 6 7 NA
-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아주 열정적이다.
1 2 3 4 5 6 7 NA

1	2	3	4	5	6	7	NA
1 매우 그렇지 않다	2 상당히 그렇지 않다	3 약간 그렇지 않다	4 어느쪽도 아니다	5 약간 그렇다	6 상당히 그렇다	7 매우 그렇다	NA 해당되지 않음

우리 아이는:

16. 어떤 활동을 할 때 그것에 전념하기 힘들다.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NA |
|---|---|---|---|---|---|---|----|
17. 강도나 "귀신"에 대해 들으면 무서워한다.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NA |
|---|---|---|---|---|---|---|----|
18. 밖에 있으면 보통 조용히 앉아 있다.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NA |
|---|---|---|---|---|---|---|----|
19. 재미있는 이야기를 즐기지만 대개 웃지는 않는다.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NA |
|---|---|---|---|---|---|---|----|
20. 가족의 계획이 잘 풀리지 않으면 슬퍼하는 경향이 있다.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NA |
|---|---|---|---|---|---|---|----|
21. 과제를 끝내지 않고 한 과제에서 다른 과제로 넘어간다.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NA |
|---|---|---|---|---|---|---|----|
22. 집안에서 놀 때 활동적으로(달리기, 올라타기, 뛰기) 움직인다.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NA |
|---|---|---|---|---|---|---|----|
23. 큰 소리를 무서워한다.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NA |
|---|---|---|---|---|---|---|----|
24. 조용한 소리도 귀를 기울이는 것 같다.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NA |
|---|---|---|---|---|---|---|----|
25. 재미있는 활동이 끝난 후에 진정되는 것이 힘들다.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NA |
|---|---|---|---|---|---|---|----|
26. 따뜻한 목욕을 즐긴다.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NA |
|---|---|---|---|---|---|---|----|
27. 어떤 일을 완수하지 못하면 우울해 하는 것 같다.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NA |
|---|---|---|---|---|---|---|----|
28. 종종 새로운 상황에 뛰어든다.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NA |
|---|---|---|---|---|---|---|----|
29. 작은 상처나 멍에도 많이 당황해 한다.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NA |
|---|---|---|---|---|---|---|----|

1	2	3	4	5	6	7	NA
매우 그렇지 않다	상당히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어느쪽도 아니다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되지 않음

우리 아이는:

30.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하면 상당히 불만스러워한다.
 1 2 3 4 5 6 7 NA
31. 사랑하는 친척이나 친구가 방문 한 다음 떠나려고 하면 속상해 한다.
 1 2 3 4 5 6 7 NA
32. 부모 중 한명의 외모가 바뀌면 그것에 대해 언급한다.
 1 2 3 4 5 6 7 NA
33. 팔을 빙글빙글 돌리거나 잡기놀이와 같은 활동을 즐긴다.
 1 2 3 4 5 6 7 NA
34. 어떤 것에 화가 나면 화난 것이 10분 이상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6 7 NA
35. 어둠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1 2 3 4 5 6 7 NA
36. 새로운 상황에 다가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1 2 3 4 5 6 7 NA
37. 때때로 오래 알고 지내온 사람들 앞에서도 수줍어한다.
 1 2 3 4 5 6 7 NA
38.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릴 수 있다.
 1 2 3 4 5 6 7 NA
39. 부모나 보모에게 바짝 달라붙어 있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5 6 7 NA
40. 자신이 가지고 놀고 싶어 하는 것을 찾지 못하면 화를 낸다.
 1 2 3 4 5 6 7 NA
41. 불을 무서워한다.
 1 2 3 4 5 6 7 NA
42. 처음 만난 어른에게 이야기 할 때 때때로 긴장해 보인다.
 1 2 3 4 5 6 7 NA
43. 다음에 뭘 해야 할지 결정할 때 천천히 서두르지 않는다.
 1 2 3 4 5 6 7 NA
44. 화가 나도 몇 분 안에 누그러진다.

1 2 3 4 5 6 7 NA

1	2	3	4	5	6	7	NA
매우 그렇지 않다	상당히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어느쪽도 아니다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되지 않음

우리 아이는:

45. 자신에게 필요한 계획을 세우며 여행 및 나들이를 준비한다.

1 2 3 4 5 6 7 NA

46. 여행을 계획할 때 매우 들떠있다.

1 2 3 4 5 6 7 NA

47. 거실에 새로운 물건이 있으면 빨리 알아챈다.

1 2 3 4 5 6 7 NA

48.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크게 웃은 적이 거의 없다.

1 2 3 4 5 6 7 NA

49. 사소한 상처나 멍에 별로 당황하지 않는다.

1 2 3 4 5 6 7 NA

50. 활동적인 게임보다 조용한 활동을 더 좋아한다.

1 2 3 4 5 6 7 NA

51. 곰곰이 생각하지 않고 처음 떠오른 것을 바로 말하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6 7 NA

52. 낯선 사람들 앞에서 수줍어한다.

1 2 3 4 5 6 7 NA

53.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어렵다(영화관에서, 교회에서 등).

1 2 3 4 5 6 7 NA

54. 슬픈 이야기를 들을 때 좀처럼 울지 않는다.

1 2 3 4 5 6 7 NA

55. 혼자 놀면서 가끔 웃거나 킁킁 거린다.

1 2 3 4 5 6 7 NA

56. TV 프로그램의 슬픈 장면을 보면서 별로 동요하지 않는다.

1 2 3 4 5 6 7 NA

57. 이야기 하는 것을 즐긴다.

1 2 3 4 5 6 7 NA

58. 나들이가기 전에 매우 들떠있다. (예: 소풍, 파티).

1 2 3 4 5 6 7 NA

59. 화가 나면 뭔가 다른 것에 대해 생각하며 금방기운을 낸다.

1	2	3	4	5	6	7	NA
1	2	3	4	5	6	7	NA
매우 그렇지 않다	상당히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어느쪽도 아니다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되지 않음

우리 아이는:

60. 다른 아이들에게 편하게 놀자고 말한다.
- 1 2 3 4 5 6 7 NA
61.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는 말을 들어도 별로 속상해 하지 않는다.
- 1 2 3 4 5 6 7 NA
62. 책에 그림을 그리거나 색칠할 때 강한 집중력을 보인다.
- 1 2 3 4 5 6 7 NA
63. 어둠을 무서워한다.
- 1 2 3 4 5 6 7 NA
64. 아주 조금만 다쳐도 잘 운다.
- 1 2 3 4 5 6 7 NA
65. 그림책 보기를 좋아한다.
- 1 2 3 4 5 6 7 NA
66. 화낼 때 달래기가 쉽다.
- 1 2 3 4 5 6 7 NA
67. 지시를 잘 따른다.
- 1 2 3 4 5 6 7 NA
68. TV 나 영화에서 “괴물들”이 나타나도 별로 겁먹지 않는다.
- 1 2 3 4 5 6 7 NA
69. 그네를 밀어줄 때 높고 빠르게 가는 것을 좋아한다.
- 1 2 3 4 5 6 7 NA
70. 가끔 초면인 사람을 보고 수줍어하며 외면한다.
- 1 2 3 4 5 6 7 NA
71. 뭔가를 만들거나 조립할 때 자기가 하는 일에 매우 열중하고 오랫동안 한다.
- 1 2 3 4 5 6 7 NA
72. 노래 듣는 것을 좋아한다.
- 1 2 3 4 5 6 7 NA
73. 위험하다고 들은 장소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 1 2 3 4 5 6 7 NA
74. 일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도 좀처럼 실망하지 않는다.

1	2	3	4	5	6	7	NA
1 매우 그렇지 않다	2 상당히 그렇지 않다	3 약간 그렇지 않다	4 어느쪽도 아니다	5 약간 그렇다	6 상당히 그렇다	7 매우 그렇다	NA 해당되지 않음

우리 아이는:

75. 화가 나면 달래기가 매우 어렵다.
- 1 2 3 4 5 6 7 NA
76. 동요 같은 가사의 소리를 좋아한다.
- 1 2 3 4 5 6 7 NA
77.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고 잘 웃는다.
- 1 2 3 4 5 6 7 NA
78. 거칠고 시끄러운 게임을 싫어한다.
- 1 2 3 4 5 6 7 NA
79. 다른 아이들과 놀면서 자주 큰 소리로 웃는다.
- 1 2 3 4 5 6 7 NA
80. TV 나 코미디 영화를 보면서 큰 소리로 웃는 일이 드물다.
- 1 2 3 4 5 6 7 NA
81. "안돼"라고 하면 활동을 쉽게 멈출 수 있다.
- 1 2 3 4 5 6 7 NA
82. 새로운 활동을 웬만해서는 시도하지 않는다.
- 1 2 3 4 5 6 7 NA
83. 보통 향수, 담배, 음식 등의 냄새를 알아채지 못한다.
- 1 2 3 4 5 6 7 NA
84. 이야기를 들을 때 쉽게 산만해진다.
- 1 2 3 4 5 6 7 NA
85. 저녁 시간에도 활력이 넘친다.
- 1 2 3 4 5 6 7 NA
86. 부모의 무릎 위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
- 1 2 3 4 5 6 7 NA
87. 놀이를 끝내려하기 전에 아이를 부르면 화를 낸다.
- 1 2 3 4 5 6 7 NA
88. 세발 자전거나 자전거를 빠르고 과격하게 타는 것을 좋아한다.
- 1 2 3 4 5 6 7 NA
89. 가끔 그림책에 집중해서 오랫동안 그림책을 본다.

1 2 3 4 5 6 7 NA

1	2	3	4	5	6	7	NA
매우 그렇지 않다	상당히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어느쪽도 아니다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되지 않음

우리 아이는:

90. 아이스크림 같이 곧 먹게 될 후식을 침착하게 잘 기다린다.

1 2 3 4 5 6 7 NA

91. 감기에 걸려 아파도 좀처럼 불편하지 않는다.

1 2 3 4 5 6 7 NA

92. 가족 나들이를 기대하지만 그것에 대해 지나치게 흥분하지는 않는다.

1 2 3 4 5 6 7 NA

93. 조용히 앉아 사람들이 일하는 걸 지켜보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5 6 7 NA

94. 팔다리를 움직이거나 좌우로 몸을 흔드는 것 같은 리드미컬한 활동을 좋아한다.

1 2 3 4 5 6 7 NA

모든 질문에 답변했는지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